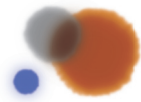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어정책과

일러두기

이 책에서 예문으로 사용한 보도 자료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지면 관계상 보도 자료 검토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을 모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 예문으로 사용한 보도 자료는 각 실국에서 실제 작성한 보도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례

- 1. 찾아보기 4
- 2. 보도 자료 바로 쓰기 19
- 3. 보도 자료 쓸 때 도움받을 곳 100

찾아보기

맞춤법

가운뎃점(·)	국내·외 → 국내외/장·차관급 → 장차관급/한·중 → 한중	28, 30, 82, 98
겹낫표(ㄹ, ㄴ)	『새만금 아리울』 → ‘ 새만금 아리울 ’	46
괄호	구)서울역사 → 구 서울역사	96
따옴표 위치	~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계획 ”이라고 밝혔다.	32, 54
인용부호	‘모든 ~ 한다.’는 → ‘ 모든 ~ 한다 ’는/“모든 ~ 한다.”라는	34, 56, 60, 64, 84, 90
물결표(~)	‘11.3.2(수)~3.18(금)까지 → 2011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40
십표	동, 서양의 → 동서양의	52
십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74
십표	선정 발표하였다. → 선정, 발표 하였다.	82, 94
날짜 생략 표시	1.1.~12. → 1. 1. ~ 12.	32, 38, 42, 46, 50, 80, 86
제목 마침표	첫발 내딛다. → 첫발 내딛다	84
나치	나찌 → 나치	48
내디딘	내딛은 → 내디딘	52
연차적으로	년차적으로 → 연차적으로	70
덧글	덧글 → 덧글	76
라이프치히 시	라이프찌히市 → 라이프치히 시	48
로서/로써	운영함으로서 → 운영함으로써	78
로서/로써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으로써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74
런칭	론칭 → 런칭	22
비즈니스	비지니스 → 비즈니스	78
뿐만	뿐 만 아니라 → 그뿐만 아니라	70
샤키에프 누를란베크	샤키예브 누를란베크 → 샤키에프 누를란베크	94
서포터스	서포터즈 → 서포터스	32
스포츠클럽 교육	스포츠클럽교육 → 스포츠클럽 교육	70
사인북	싸인북으로 → 사인북으로	30
안테나숍	안테나샵 → 안테나숍	20
애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 애플리케이션	22
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32
을/를	성장을 → 성장을	42
캘리그래피	캘리그라피 → 캘리그래피	72
컨셉트	컨셉 → 컨셉트	20, 34, 52

콘텐츠	컨텐츠 → 콘텐츠	92
콘퍼런스	컨퍼런스 → 콘퍼런스	38
캐릭터	캐릭터 → 캐릭터	52
크리스탈	크리스탈 → 크리스탈	28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 타이포그래피	72
프레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 프레젠테이션	34

띄어쓰기

각국	각 국 → 각국	54, 56
간(사이)	정부간 → 정부 간/종교간 → 종교 간/양국간 → 양국 간	30, 66, 74
간(시간)	3개월 간 → 3개월간/열흘 간 → 열흘간	48, 68
개	100여개 → 100여 개	72
건	1만9천 5백여 건 → 1만 9천5백여 건	62
괄호	(문화콘텐츠)육성의 → (문화 콘텐츠) 육성의	24, 52, 82
게임 선정	게임선정 → 게임 선정	22
관심 있는	관심있는 → 관심 있는	68
국내 캐릭터	국내캐릭터 → 국내 캐릭터	20
문화 향수율 · 만족도	문화향수율 · 만족도 → 문화 향수율 · 만족도	88
중소 규모	중소규모 → 중소 규모	90
즐거 찾는	즐거찾는 → 즐거 찾는	20
친구 맺기	친구맺기 → 친구 맺기	74
풀어 쓰는	풀어쓰는 → 풀어 쓰는	64
한 · 중 · 일 장애인 미술	한 · 중 · 일장애인미술 → 한 · 중 · 일 장애인 미술	56
그중	그 중 → 그중	94
까지	30일(금) 까지 → 30일(금)까지	36
날짜	10월21일 → 10월 21일	68, 78
시간	4박5일간 → 4박 5일간	26
낫표	9월「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36
내	대학교내 → 대학교 내	58
달러	187,031천달러 → 187,031천 달러	44
데	극대화하는데 → 극대화하는 데	70

동안	3년동안 → 3년 동안	28
-되다	소개 되었고 → 소개되었고/기대 된 다 → 기대된다/공개 된다 → 공개된다	62, 82, 96
따르다	이에따라 → 이에 따라	62
뜻깊다	뜻 깊은 → 뜻깊은	28
라는	권리보호 라는 → 권리보호라는	60
만	마포구 만의 → 마포구만의	70, 72
만하다	반할만한 → 반할 만한	34
말	3월말 전에 → 3월 말 전에	40
명	1만명 → 1만 명	28, 74, 84
미-	미 이수시 → 미이수 시	70
바	발표한바 있고 → 발표한 바 있고	40
보다	내세우기 보다는 → 내세우기보다는	34
불	1,000만불 → 1,000만 불	28
뿐만	항상 뿐 만 → 항상뿐만	70
새	새장 → 새 장	38
선보이다	선 보인다 → 선보인다	26
속	동화속 → 동화 속	52
속	세계속의 → 세계 속의	76
수	즐길수 → 즐길 수	52
숫자	1만9천 5백여 건 → 1만 9천5백여 건	62
심포	2,3호점 → 2, 3호점	20
시간	7시30분 → 7시 30분	32
시	미 이수시 → 미이수 시	70
시	복원공사시 → 복원 공사 시	84
씨	서영희씨가 → 서영희 씨가	26, 68, 72, 82
씨	이씨 → 이 씨	82
약	약14조원 → 약 14조 원	38
올해	올 해 → 올해	62
외	상무이사외 → 상무이사 외	56
원	약14조원 → 약 14조 원	38, 90
위	사진위에 → 사진 위에	46
위하다	관광객위한 → 관광객 위한	80

이날	이 날 → 이날	28, 34
이번	이번회의 → 이번 회의	30
일본 이름	오오헤나오키 → 오오헤 나오키	56
자리매김하다	자리 매김할 → 자리매김할	98
잘되다	잘 되는 → 잘되는	66
전	전세계인이 → 전 세계인이	52
점	200여점 → 200여 점	20, 56
제	제 4기 → 제4기	50
주다	북돋아줄 → 북돋아 줄	24
중	건립중인 → 건립 중인	94
지다	친숙해 질 수 있는 → 친숙해질 수 있는/공고해 졌으며 → 공고해졌으며	36, 74
지하	지하1층 → 지하 1층	26
직함	토랑추기경 → 토랑 추기경	66
첫걸음	첫 걸음 → 첫걸음	28
첫선	첫 선 → 첫선	54
초청하다	초청 하여 → 초청하여	54
측	아세안측 → 아세안 측	54
평	3천평 → 3천 평	96
하	생태계 하에 → 생태계하에	78
하다	초청 하고 → 초청하고/디제잉 하고 → 디제잉하고/이바지 할 → 이바지할	
	노력 하겠다 → 노력하겠다	32, 34, 52, 54
한번	다시 한번 한국의 → 다시 한 번 한국의	34
한자리	한 자리에서 → 한자리에서	72
한	한점은 → 한 점은	68
함께하다	함께 합니다. → 함께합니다.	64
형	가족 형 축제 → 가족형 축제	52

낱말

DB	DB → 디비	62
DJ	DJ → 디제이	34
ETRI	ETRI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40
iOS	iOS(아이폰 용) 사용자 → 아이폰 사용자	46

keynote speech	keynote speech → 기조연설/기조연설(keynote speech)	30
K-POP	K-POP → 한국 대중음악/한국 대중음악(K-POP)/케이 팝(K-POP)	34
MBC	MBC → 문화방송(MBC)	50
MDGs	MDGs → 새천년개발목표(MDGs)	30
MOU	MOU → 업무협약	48
OB	OB → 기자단 선배들	50
QR코드	QR코드 → 큐아르(QR) 코드	62
RPG 게임	RPG 게임 → 롤플레잉 게임(RPG)	22
SF소설	SF소설 → 공상과학소설(SF)	72
SMS	SMS → 문자 메시지	62
SNG	SNG →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22
개발	명칭을 개발하기 위해 → 이름을 정하기 위해	96
건수	건별 → 건수	58
공중	일반 공중이 → 공중이 → 일반인이	38
네티즌	외국인 네티즌 → 외국 누리꾼	76
디테일하다	디테일한 → 세세한	68
런칭	런칭 → 론칭 → 출시	22
리스크	리스크 → 투자 위험도/위험도/위험	90
뮤지엄	뮤지움 → 뮤지엄 → 미술관	48
보고	보고에서는 → 보고회에서는	60
수상	수상하게 → 수훈하게/수상자 → 수훈자	28
신설	신설하기로 → 새로 선임하기로	54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 → 기록 관리자	94
아티스트	아티스트 → 예술가	72
어지럼증	어지러움증 → 어지럼증	40
유명 셀러브리티	유명 셀러브리티 → 유명 인사	34
이벤트	이벤트 → 행사	76
점수	점수 → 점 수 → 복사물 개수	58
제고	수익률 제고에도 → 수익률을 올리는 데에도	90
제고하다	제고하기 → 높이기	68
집객	집객 → 전당의 방문자를 모으는 일	52
치사	치사 → 축사	84
테크니컬 투어	테크니컬 투어 → 특별 관광 여행(테크니컬 투어)	30

트렌디하다	한국의 트렌디한 문화 → 한국에서 유행하는 문화	76
피션	피션되었다. → 선임되었다.	54
화	3D화 · 실감화 → 3D화 · 실감화	40

표현

(구)서울역사를 원형 복원하여 8월에 개관하게 될 복합문화예술 공간의 → 8월에 개관하게 될, 구 서울역사의 원형을 복원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의	96
(성)폭력, 승부조작 등 부조리 등의 → (성)폭력, 승부조작 등 부조리의	70
~ 호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호텔 사업을 시행한다.	80
100만 명 시대 → 100만 명 시대를 맞아	88
15,000명의 터키군을 → 15,000명을	74
150만원의 상장과 상금이 → 상장과 150만 원의 상금이	96
2000년 완전히 중단되었으나 → 2000년에 섬유 생산도 완전히 중단되었으나	48
2003년부터 ~ 개최된다. → 2003년 대구 개최를 시작으로 광주, 전주, 제주, 부산, 청주, 인천, 목포에서 개최되었으며 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2011년 행사는 강릉에서 개최된다.	92
2011년 미디어정책 대국민보고회를 2011. 2. 21(월)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2월 21일(월)에 프레스센터에서 '2011년 미디어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42
2PM 등 유명 K-POP을 → 투피엠(2PM) 등 유명 가수의 케이 팝(K-POP)을	34
41.0% → 2010년 41.0%	88
8월 9일 → 8월 9일(화)	84
'2011 독서나눔 콘서트'는 ~ 국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2011 독서나눔 콘서트'를 ~ '문화난장 ~ 조성된다.' → '문화난장 - 칠사당 거리의 재발견' 행사를 통해 오후 3시부터 구명주초등학교에서 한국은행 사거리까지의 거리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는 구간으로 조성된다.	36
'신진여성문화인상'은 ~ 선정하여 → '신진여성문화인상'에는 ~ 선정하여	86
'오픈엑세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10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10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오픈엑세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38
'장르별'로는 여전히 드라마의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 '장르별' 특징을 살펴보면, 여전히 드라마의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기자단』은 오리엔테이션 중 하나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 기자단'이 매년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어오고 있는 전통이 한 가지 있다.	50
가곡은 모음을 길게 늘이거나 매개모음을 사용하여 노랫말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곡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 가곡을 부를 때는 모음을 길게 늘여서 부르거나 매개모음을 사용해서 부르기 때문에 노랫말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4
각 분야별로 참석자들이 → 각 분야에서 참석한 참석자들이	42
각각 글, 사진, 영상, 그림 등이 구성인원으로 배치되어 → 각각 글, 사진, 영상, 그림 등을 맡은 인원들로 구성, 배치되어	50
개관식이 8월 9일(화) 오후 4시 → 개관식이	84
개최된다. → 개최되는 것이다.	60
-이~개최한다. → -이~개최된다.	84
객관성을 위해 → 객관성을 위한	98
건립하는 관광호텔의 → 건립되는 관광호텔의	80
경북궁에서 수문장 교대식 기로연 공연 등 각종 전통 공연 → 경북궁에서의 수문장 교대식, 기로연 공연 등 각종 전통 공연	28
경북 상주시까지 → 서울시에서 경북 상주시까지	32
계획이 논의되었다. →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54
공감대 형성에 다가 서게 될 것이다. → 공감대를 형성해 갈 계획이다.	76
공감대를 조성하고 인터넷 지식저장소 구축 사업과 함께 → 공감대를 조성하고 인터넷 지식저장소를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38
추기경은 공감하시고 → 추기경은 공감하고	66
공공기금에 ~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금에 ~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8
공동주최하는 → 공동으로 주최하는/공동 주최를 하는	22
공장을 매입하면서부터 → 매입하여	48
관광·레저 지구 개발에 대한 미래 수요자인 → 관광·레저 지구 개발의 미래 수요자인	46
관광객의 ~ 높이기 위해 → 관광객들이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여행 상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도 높여주기 위해	98
교육 내용도 → 이번 교육에서는	70
구축 중에 있으며 → 구축하고 있으며	38

규모가 늘었습니다. →	규모가 점점 늘었습니다.	64
금년에 활동하는 기자단은 다른 해와 달리 →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기자단에	50
기증하여 →	기증되어	68
기회가 될 것이다. →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김동욱 교수 사회로 →	김동욱 교수의 사회로	42
녹색관광을 즐기고 참여하는 →	녹색 관광을 즐기고 녹색 관광에(거기에) 참여하는	32
높은 작품이며 감독이나 →	높은 작품이며, 감독이나	90
대량으로 보관하는 →	복사물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58
대출금은 ~ 결정되며 →	대출금은 영화 제작비의 최대 50% 이내에서 투자 위험도 등의 평가를 통해 적절한 규모로 결정된다.	90
런칭을 계획 중으로 →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22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50여 명과 →	~ 일반 국민 등 50여 명과	60
문화부는 ~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40
문화자원의 정보열람·체험할 수 있는 →	문화 자원의 정보를 열람하고 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94
문화적 욕구와 실태를 →	문화적 욕구와 그 실태를	8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정병국 장관은	6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를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저작권교육원에서 개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저작권교육원에서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를 개최한다.	60
미래상에 대해 보다 쉽고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	미래상에 더 쉽고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46
밝히고자 한다. →	밝힐 계획이다.	84
배양과 →	배양에 대한 교육과	70
사회 속 자리 잡고 있는 →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56
상품을 수여해왔다. →	상품을 수여한다.	50
세상에는 →	세상에서는	66
소폭 증가한 →	소폭으로 증가	44
수립중에 있는 →	수립되고 있는	46
수상자로는 →	수상자에	86
수시 개최함으로써 →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78

스며든 것이라는 →	스며들어 있는 것이라는	64
시식 행사에는 ~ 흥어삼합 등을 전시하고 음식 전문가의 음식에 대한 소개도 들을 수 있다. →	시식 행사에는 ~ 전시하고, 음식 전문가에게 음식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26
신규 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로드쇼의 확대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시장 개척의 지원을 위한 로드쇼의 확대	44
신규사업제안 →	신규 사업 계획	54
심사위원회는 올해 ~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심사위원회는 '심재명 씨가 올해 ~ 있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86
아시아 전통실내악단 창단은 →	아시아 전통실내악단이 연주할 곡들은	54
아시아 지역은 ~ 변화가 없었으나 중남미 지역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 →	~ 중남미 지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	44
아울러 16일 →	아울러 행사 참가자들은 16일	32
어린왕자에 →	어린왕자에게	52
역사성, 장소성이 잘 드러나며, 공공성격의 →	역사와 장소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공공성이 있는	96
열 분의 →	열 명의	84
영리·상습업자에 대해서는 →	영리·상습 업자는	58
영역의 종사자인 건축가, 장애인, 앱 창작자 →	영역과 관련된 건축가, 장애인, 앱 창작자	60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겼던 가곡과 풍류는 풍속화와 문인화, 기록화 등 다양한 전통회화 속에 숨겨진 음악이야기와 함께 국립국악원을 대표하는 가객들이 들려주는 품격 있는 가곡은 시대를 거슬러 조선시대의 풍류와 함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의 모습이 담겨 있는 풍속화와 문인화, 기록화 등에 숨겨진 음악 이야기가 국립국악원을 대표하는 가객들이 들려주는 품격 있는 가곡과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 시대의 풍류를 느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24
오는 10월 14일을 시작으로 16일까지 →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92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으며 →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76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	우리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66
우수여행상품에 대해서는 →	우수 여행 상품에는	98
위원장은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와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와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78

용자상환 기간연장 등 용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		
용자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용자 조건을 개선하는 등	80	
응모한 296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	응모된 296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98
이는 ~ 추세에 있으며 →	~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58
이대 매장에서는 ~ 것으로 기대된다. →	이대 매장은 ~ 것으로 기대된다.	20
이번 교류전을 통해 ~ 계기가 될 것이며 →	이번 교류전이 ~ 계기가 될 것이며	56
이번 터키 한국문화원은 전 세계 한국문화원 중 21번째 개원이며 유럽에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폴란드, 스페인에 이어 7번째 개원이다. →		
이번 터키 한국 문화원은 전 세계 한국 문화원 중에서는 21번째로 개원하는 것이며, 유럽 한국 문화원 중에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폴란드, 스페인에 이어 7번째로 개원하는 것이다.	74	
이번 행사 결과를 보아가며 →	이번 행사 결과에 따라	26
이번회의에는 →	이번 회의에서는	30
이와 함께 문화계에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		
이와 함께 앞으로 문화계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86	
이주민의 ~ 증진하기 위해 →		
이주민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고 내국인과 소통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해	88	
이주민이 ~ 나타났다. →		
이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8	
일본(53.9%), 대만(13.2%), 중국(8.8%)이었고, →		
일본이 53.9%, 대만이 13.2%, 중국이 8.8%를 차지하였으며,	44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 한국은 →	일어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66
입찰을 통해 심사·평가기관을 한국관광학회를 →		
입찰을 통해 한국관광학회를 심사·평가 기관으로	98	
자리매김 될 것으로 →	자리매김할 것으로	20
자유 토론한다. →	자유롭게 토론한다.	42
재창조한 한복이 →	재창조된 한복이	68
재탄생을 알리며 →	재탄생하는 것을 알리고	96
재현하였는데 전시 후 →	재현하였는데 이 자료는 전시 후	68
적극 추천할 →	적극적으로 추천할	74
적발돼 불법복제서적 406부를 전량 수거했다. →		
적발되었으며, 해당 불법복제서적 406부는 전량을 수거했다.	58	

전달해주는 →	전달해 줄	76
전량 수거되었다. →	전량이 수거되었다.	58
전통 예술계 거장들과 유인촌, 박정자의 낭독이 어우러진 음악회가 →		
전통 예술계 거장들의 노래와 유인촌, 연극배우 박정자의 낭독이 어우러진 음악회가	24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최승호 회장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최승호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회장	20	
정보경(안무가) 총 5명을 →	정보경(안무가) 등 총 5명을	86
정책개발을 위해 →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42
제안된 →	공모전에서 제안된	46
제작 사업에 국가·지방 50% 매칭 조건으로 →		
제작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40	
제출하면 되고, →	제출하면 된다.	40
조사에서 가장 →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88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의 성지 방문 등 →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의 성지를 방문하는 등	66	
주요 적발사례로는 ~ 사례도 있었으며 →	주요 적발 사례 중에는~사례도 있었다.	58
중단되었다. →	운영이 중단되었다.	48
증강현실(AR, 실제 사진위에 가상 정보를 겹쳐서 보여줌) →		
증강현실(AR, 실제 사진 위에 가상 정보를 겹쳐서 보여 주는 것)	46	
지방자치단체 주관, 3D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을 →		
지방 자치 단체가 주관한 3D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들	40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될 예정이다. →	지방 자치 단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40
지속 수렴해 →	지속적으로 수렴해	42
지속가능한 →	지속적인	78
지속적인 발전과 아세안측과 한국의 협업을 위하여 →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아세안 측과 한국의 협업을 위하여	54	
진부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한계 →	진부한 소리만을 전달할 수도 있는 한계	76
진행하여 2012년 →	진행하며, 도감 편찬은 2012년	54
차이란 추천 메뉴가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식당에 많이 보급·판매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		
차이란 추천 메뉴가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식당에 많이 보급되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이 판매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6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는다. →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참신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42
창작 활동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48
첫날은 →	첫날에는	50
최종 결정된 →	최종적으로 결정된	82
추가 서비스 한다. →	추가로 서비스한다.	62
추기경 일행과의 오찬을 같이 하였다. →	추기경 일행과 오찬을 같이하였다.	66
추후 년차적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하여 →	매년 교육 인원을 점차 확대하여	70
출발했습니다. 이듬해 →	출발했는데, 이듬해	64
테이프커팅이 아니라 →	테이프커팅이 아닌	84
티스토어 출시, 연내 →	티스토어에 출시하였고, 연내에	22
포럼은 ~ 연구를 시행한다. →	포럼은 ~ 연구를 시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78
표어공모전에는 다수의 중국인이 응모하는 등 →	다수 중국인의 작품 등	82
프로젝트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	프로젝트를 함께 펼칠 예정이다.	84
한 결과다. →	이루어졌다.	88
한·중·일 3국의 장애인 미술가들의 →	한·중·일 3국 장애인 미술가들의	56
한·중·일 3국의 장애인미술작가들의 최초 전시행사로 →	한·중·일 3국 장애인 미술 작가들의 작품으로 열리는 최초의 전시 행사로	56
한국문화원이 한국 문화의 일방적 소개 활동이 아니라, 양국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국 문화원을 한국 문화의 일방적 소개 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양국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74
한복 스타일링이 선보여질 →	한복 스타일링을 선보일	68
한중수교 20주년이라는 성년이 되기까지 →	한중 수교가 20주년이 되어 성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성년이 되기까지	82
한편, 포럼 출범식은 안문석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원광연 카이스트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	포럼 출범식에서는 안문석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 뒤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광연 KAIST대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78
행사는 →	행사에는	94
행사를 펼쳐진다. →	행사가 펼쳐진다.	36
협조 요청할 →	협조를 요청할	58

확보하는 한편 민속 → 확보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감은 민속	54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된다는 점이다. →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흔히 어렵게 생각하는 정책을 → 흔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정책을	64

**보도 자료
바로 쓰기**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 매장 1호점(이대점) 오픈

- 한류 스타 상품 ① 200여점, 캐릭터·토이 상품 ① 1,800여점 등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 매장 열려
- 이대 1호점을 시작으로 부산, 대학로에 ② 2,3호점도 10월경 잇달아 오픈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③ 이대 매장에서 카라, 소녀시대, 배용준, 이다해 등 케이 팝, 드라마의 스타 캐릭터 상품 200여 점도 볼 수 있어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④ 즐겨찾는 새로운 한류 관광 명소로 ⑤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장별로 상권과 고객층을 고려하여, 매장 특성에 따라 이대점은 ‘한류’, 부산점은 ‘토이’, 대학로점은 ‘FUN’을 각각 ⑥ 컨셉으로 하여, 관련 상품군을 개발하는 캐릭터 회사의 ⑦ 안테나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오픈식 행사에는 ⑧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최승호 회장 및 부즈 김부경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이날 행사는 현수막 제막, 문패 거치식, 일일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또한, 인기 한류 스타 이다해가 오픈식에 참가해 국산 캐릭터를 응원하는 행사도 같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산 캐릭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판로 개척과 유통 촉진 부분이다.”라며, “국산 캐릭터 유통 전문 매장의 확대를 통해 ⑨ 국내캐릭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해외로도 뻗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① 200여점 → 200여 점
‘점’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 ② 2,3호점 → 2, 3호점
십표의 뒤는 띄어 쓴다.
- ③ 이대 매장에서 ~ 것으로 기대된다. → 이대 매장은 ~ 것으로 기대된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주어의 형태를 바꾼다. 실제 보도 자료에서는 문장中间的 서술어도 수정하였다.
- ④ 즐겨찾는 → 즐겨 찾는
‘즐겨 찾는’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 ⑤ 자리매김 될 것으로 → 자리매김할 것으로
‘자리매김되다’는 피동 표현인데, 피동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므로 굳이 피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능동 표현을 쓰는 것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자리매김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⑥ 컨셉 → 콘셉트
‘concept’는 ‘콘셉트’로 표기한다.
- ⑦ 안테나샵 → 안테나숍
‘antenna shop’은 ‘안테나숍’으로 표기한다.
- ⑧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최승호 회장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최승호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회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름)(기관명)(직함)’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기관명)(이름)(직함)’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모두 같은 순서로 구성되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좋다.
‘licensing’은 ‘라이선싱’으로 표기해야 하나 협회 이름은 고유명사이므로 수정하지 않았다.
- ⑨ 국내캐릭터 → 국내 캐릭터
‘국내 캐릭터’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2011년 3분기 '이달의 우수 게임' 시상식 개최

'크림슨하트', '제이드래곤', '토크리시 뉴욕스토리' 등 총 3개 ① 게임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후원하고 전자신문, 더게임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② 공동주최하는 '이달의 우수 게임' 3분기 시상식이 2011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렸다. 3분기 수상작은 총 20편의 응모작 가운데 모바일, 온라인 및 기능성 게임 부문에서 각 1편씩 선정되었다. 우수 게임 시상을 통하여 개발사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게임, ③ SNG, 영어 교육용 기능성 게임 등의 경쟁 치열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모바일 부문의 수상작인 (주)에이앤비소프트의 '크림슨하트'는 마족과 인간의 잔인한 전쟁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액션 ④ RPG 게임이다.

2011년 3월 통신 3사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6월 안드로이드 버전 ⑤ 티스토어 출시, 연내 앱스토어에도 ⑥ 런칭을 계획 중으로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⑦ 어플리케이션 강의 서비스 등과 연계한 학습이 가능하며 뉴욕의 여러 명소가 게임 속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① 게임선정 → 게임 선정

'게임 선정'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② 공동주최하는 → 공동으로 주최하는/공동 주최를 하는

'공동주최하는'은 '공동 주최하는'으로 띄어 써야 한다. '공동 주최하는'은 명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형태이므로 수식 구조가 잘못된 표현이다. '공동으로 주최하는'으로 다듬는 것은 명사 '공동'을 '부사어'의 형태로 만든 것이고, '공동 주최를 하는'으로 다듬는 것은 '공동 주최를'을 목적어구로 만든 것이다.

③ SNG →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국어 기본법에 따라 외국 문자는 괄호 안에만 쓸 수 있다.

④ RPG 게임 → 롤플레잉 게임(RPG)

'RPG'는 'role-playing game'의 약자이다. 'RPG'라는 단어 안에 이미 '게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RPG'라는 단어 뒤에 '게임'이라는 단어를 또 쓸 수는 없다.

⑤ 티스토어 출시, 연내 → 티스토어에 출시하였고, 연내에

명사만 계속 나열되어 있어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명사만 계속 나열해 쓰는 것보다 그것을 문장의 형태로 풀어 쓰는 것이 가독성이 더 높다.

⑥ 런칭을 계획 중으로 →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 중으로'와 같은 표현보다 '계획하고 있다'와 같이 문장으로 풀어 쓰는 표현이 가독성이 더 높다. 'launching'은 '론칭'으로 표기한다. '론칭'은 '(신규) 사업 개시'로 순화하였다. 하지만 문맥상 '사업 개시'보다는 '출시'가 더 어울린다.

⑦ 어플리케이션 →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표기한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축하 가곡 한마당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국악원에서 가곡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제5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 10. 11.)된 것을 축하하는 음악회 ‘가곡(歌曲),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개최한다.

5일간 열리는 음악 축제의 첫 무대에서는 ① 전통 예술계 거장들과 유인촌, 박정자의 낭독이 어우러진 음악회가 펼쳐진다. 또한 ② 김경배(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예능 보유자)명인을 비롯한 가곡의 예능 보유자가 모두 출연해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③ 가곡은 모음을 길게 늘이거나 매개모음을 사용하여 노랫말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곡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④ 유인촌과 박정자(연극배우)가 출연해 가곡의 노랫말을 낭독하여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가곡의 멋을 ⑤ 북돋아줄 예정이다.

1월 28일(금)에는 그림 이야기와 함께 감상하는 가곡 공연이 펼쳐진다. ⑥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겼던 가곡과 풍류는 풍속화와 문인화, 기록화 등 다양한 전통회화 속에 숨겨진 음악이야기와 함께 국립국악원을 대표하는 가객들이 들려주는 품격 있는 가곡은 시대를 거슬러 조선시대의 풍류와 함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좀 더 쉽게, 좀 더 다채롭게, 그리고 더 즐겁게 관객의 마음에 다가가는 이 음악회를 통해, 가곡이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이름과 설 자리를 되찾기를 바란다.

① 전통 예술계 거장들과 유인촌, 박정자의 낭독이 어우러진 음악회가 → 전통 예술계 거장들의 노래와 유인촌, 연극배우 박정자의 낭독이 어우러진 음악회가

‘전통 예술계 거장들’과 ‘유인촌, 박정자의 낭독’의 구조가 대등하지 않다. ‘거장’과 ‘낭독’이 대등한 역할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전통 예술계 거장들’에 ‘낭독’과 대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추가한다. 박정자의 직업에 대한 정보가 첫 번째 문장이 아닌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다. 이러한 기본 정보는 앞에 제시하는 것이 더 좋다.

② 김경배(중요무형문화재 ~)명인을 → 김경배(중요무형문화재 ~) 명인을 이름과 그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 써야 하므로 ‘김경배’라는 이름과 ‘명인’은 띄어 쓴다.

③ 가곡은 ~ 위해 → 가곡을 부를 때는 모음을 길게 늘여서 부르거나 매개모음을 사용해서 부르기 때문에 노랫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무대에서는 가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비문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다.

④ 유인촌과 박정자(연극배우)가 → 유인촌과 박정자가 첫 번째 문장에서 박정자가 연극배우라는 정보를 제시했으므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 정보를 생략한다.

⑤ 북돋아줄 → 북돋아 줄
본용언이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뒤의 보조용언과 붙여 쓸 수 없다.

⑥ 예로부터 ~ 될 것이다. → 예로부터 선비들이 즐겼던 풍류의 모습이 담겨 있는 풍속화와 문인화, 기록화 등에 숨겨진 음악 이야기가 국립국악원을 대표하는 가객들이 들려주는 품격 있는 가곡과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 시대의 풍류를 느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비문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중국인 관광객 입맛을 사로잡을 차이란 추천 메뉴 판매 개시

홍콩의 식신 ①차이란씨가 추천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음식이 중국 관광객에게 ②선 보인다.

③시식행사에는 차이란씨가 추천한 메뉴인 갈비찜, 김치보쌈, 장어요리, 삼계탕, 홍어삼합 등을 전시하고 음식 ③전문가의 음식에 대한 소개도 들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여행업계,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용 식당 업주, 음식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시식을 할 예정이다. 당일 식당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직접 음식을 맛보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반응에 따라 향후 이를 사업의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④차이란씨는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한국을 방문했으며 서울 고급 한식당 6개소, 경기도 이천 소재 복숭아 과수원 체험 및 이천 쌀밥 정식과 중국관광객 전문 관광식당 3개소를 방문하여 시식·체험한 바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⑤지하1층 상영관에서 한식 체험에 대한 품평 결과를 소개·강연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시식 행사를 계기로 ⑥차이란 추천메뉴가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식당에 많이 보급·판매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⑦이번 행사결과를 보아가며 판매 식당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차이란씨가 → 차이란 씨가

‘씨’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② 선 보인다. → 선보인다.

‘선보인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③ 시식 행사에는 ~ 홍어삼합 등을 전시하고 음식 전문가의 음식에 대한 소개도 들 수 있다. → 시식 행사에는 ~ 전시하고, 음식 전문가에게 음식에 대한 소개를 들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게 문장을 다듬는다.

④ 차이란씨는 ~ 체험한 바 있다. → 차이란 씨는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한국을 방문했으며, 서울 고급 한식당 6개소, 중국 관광객 전문 관광식당 3개소 등을 방문하여 시식을 하고, 경기도 이천을 방문해 복숭아 과수원 체험 및 이천 쌀밥 정식 시식을 한 바 있다.

수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문장이다. 차이란 씨가 고급 한식당을 체험하거나 이천 쌀밥 정식을 체험할 수는 없다. 문장 수식 구조가 맞게 문장 전체를 다듬는다.

‘4박 5일’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⑤ 지하층 → 지하 1층

‘지하 1층’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⑥ 차이란 추천 메뉴가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식당에 많이 보급·판매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 차이란 추천 메뉴가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식당에 많이 보급되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이 판매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수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문장이다. 차이란 추천 메뉴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이 판매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식당에 많이 판매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장 수식 구조가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⑦ 이번 행사 결과를 보아가며 → 이번 행사 결과에 따라

문화부의 입장이 약간 모호해 보일 수 있는 표현이다.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제38회 관광의 날 기념, 관광진흥유공자 정부 포상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8회 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9월 27일 오전 11시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행사를 연다.

① 이 날의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쇼핑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동화면세점 신정희 대표가 ② 수상하게 된다. 동탑산업훈장은 롯데호텔 제주카지노 문태영 상무, 철탑산업훈장은 (주)에치아이에스코리아 이병근 대표, 석탑산업훈장은 (사)경상남도관광협회 추상명 회장이 영광의 ② 수상자가 되었다.

또한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숙박관광위원장으로 외래관광객 ③ 1만 명 유치에 기여한 (주)④ 크리스탈관광호텔 박성배 대표와 최근 ⑤ 3년동안 매년 ⑥ 1,000만불 이상의 외화 획득으로 국가 이익 증대에 기여한 (주)명품 이용근 대표 등이 산업포장을 받게 되며, 외화 획득 우수 관광업체에 수여되는 관광진흥탑은 (주)파라다이스글로벌 등 5개 업체가 수상하게 된다.

이 날 기념식 행사는 한국 관광 태동 50주년을 맞아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인 ⑦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식, 기로연 공연 등 각종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펼쳐지며, 한국 관광 산업 후반세기의 ⑧ 첫 걸음으로 '현대서비스 실천대회'를 갖고, 향후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등 경복궁을 찾는 ⑨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⑩ 뜻 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① 이 날 → 이날

'이날'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② 수상하게 → 수훈하게 / 수상자 → 수훈자

'수상'은 '상을 받는다'는 뜻인데, '훈장'과 '상'은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수훈'은 '훈장을 받는다'는 뜻이므로 단어의 쓰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수상'을 모두 '수훈'으로 바꾼다.

③ 1만명 → 1만 명

'명'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④ 크리스탈 → 크리스털

'crystal'은 '크리스털'로 표기한다. 보도 자료에 나온 '(주)크리스탈관광호텔'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았다.

⑤ 3년동안 → 3년 동안

'동안'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⑥ 1,000만불 → 1,000만 불

'불'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⑦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식, 기로연 공연 등 각종 전통 공연 → 경복궁에서의 수문장 교대식, 기로연 공연 등 각종 전통 공연

'경복궁에서'는 부사어이므로 그 뒤에 나오는 명사구를 꾸며줄 수 없다.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경복궁에서'를 관형어의 형태인 '경복궁에서의'로 바꾼다.

⑧ 첫 걸음 → 첫걸음

'첫걸음'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⑨ 국내·외 → 국내외

'국내외'는 한 단어이므로 가운뎃점을 쓸 수 없다.

⑩ 뜻 깊음 → 뜻깊은

'뜻깊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경주에서 10월 8일 개막

관광 분야 최대 ① 정부간 국제회의인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19th Session of the UNWTO General Assembly)’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이번 총회에 42개국 장관, 16개국 차관 및 대사를 포함, 95개국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며 회의에 참석하는 ② 장·차관급 숫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또 ③ 이번회의에는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 사상 처음으로 장관급 회의(Ministerial Round Table)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관광이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관광 장관과 대표단들을 환영할 예정이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는 유엔 세계관광기구의 골든북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골든북은 관광의 경제·산업적 중요성에 대한 ④ 인식제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결의를 밝히는 ⑤ 싸인북으로 현재까지 헝가리,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⑥ keynote speech를 하는데, 최빈국에서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경제와 관광 산업의 역사를 유엔 ⑦ MDGs와 연계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조선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양동마을 4코스의 ⑧ 테크니컬 투어는 경주의 뛰어난 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① 정부간 → 정부 간

‘간’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참고로 ‘무엇과 무엇의 사이’를 뜻하는 ‘간’은 의존명사이지만 시간과 관련된 단어 뒤에 쓰이는 ‘-간’은 접사이므로 두 가지를 잘 구별하여 써야 한다.

② 장·차관급 → 장관급

장관과 차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장차관’은 한 단어이므로 가운뎃점을 쓸 수 없다.

③ 이번회의에는 → 이번 회의에서는

조사 ‘에’는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조사 ‘에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는 행동’이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조사 ‘에서’를 써야 한다.

④ 인식제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 인식을 높이고 관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고’는 ‘높임’으로 순화하였다. 명사만 계속 나열하여 쓰는 것보다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 쓰는 것이 더 좋다.

⑤ 싸인북으로 → 사인북으로

‘sign’은 ‘사인’으로 표기한다.

⑥ keynote speech → 기조연설/기조연설(keynote speech)

‘keynote speech’와 기조연설은 같은 말이므로 기조연설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⑦ MDGs → 새천년개발목표(MDGs)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에서는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만 쓸 수 있다.

⑧ 테크니컬 투어 → 특별 관광 여행(테크니컬 투어)

어려운 외래어는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다. 순화한 말이 외래어가 나타내는 원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화어를 쓰고 괄호 안에 그 외래어를 써주면 된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녹색 열차' 달린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은 녹색성장 ② 주간(4.16-22)을 맞아 새로운 저탄소 녹색관광 상품 홍보와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4. 16.(토) ③ 경북 상주시까지 '자전거 녹색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유명 자전거 블로거, 일반인, 대학생 자전거 동호인, 주한 외국관광 인사 및 관광 ④ 서포터즈 등 약 250여 명이 참가하여 저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열차를 이용, 지구 환경을 살리는 탄소절감 여행을 체험한다.

또한 열차 운행 중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 장편 소설 <객주>의 작가 김주영 씨를 ⑤ 초청 하여 상주와 낙동강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자전거 녹색 열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협조를 받아 특별 열차로 편성(8량, 자전거 거치 차량 3대 포함)되었으며, 16일 오전 ⑥ 7시30분 자전거 도시 경상북도 상주시로 가는 열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로 상주 시내 및 외곽 지역 약 45km 코스를 일주하게 된다.

- ⑦ 아울러 16일 당일 상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제 개막식'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 주관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본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⑧ 녹색관광을 즐기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철도와 자전거를 이용한 저탄소 녹색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⑨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괄호 뒤의 조사는 괄호 앞의 말에 맞추어서 적어야 한다. 괄호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조사 '는'을 써야 한다.
- ② 주간(4.16-22) → 주간(4. 16. ~ 22.) '연월일' 뒤의 온점은 각각 '연, 월, 일'을 나타내므로 온점으로 날짜를 나타낼 때는 각각의 숫자 뒤에 모두 온점을 찍는다. '연, 월, 일'은 모두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각각 띄어 쓴다.
- ③ 경북 상주시까지 → 서울시에서 경북 상주시까지 열차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를 추가한다. '~까지'는 언제나 '~부터'나 '~에서' 따위의 말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 ④ 서포터즈 → 서포터스 'supporters'는 '서포터스'로 표기한다.
- ⑤ 초청 하여 → 초청하여 '초청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⑥ 7시30분 → 7시 30분 시와 분은 띄어 쓴다.
- ⑦ 아울러 16일 → 아울러 행사 참가자들은 16일 문장에서 주어 생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단이 바뀐 뒤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의 주어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⑧ 녹색관광을 즐기고 참여하는 → 녹색 관광을 즐기고 녹색 관광에(거기에) 참여하는 '녹색 관광을'과 '참여하는'이 호응하지 않으므로 '참여하는'에 필요한 부사어 '녹색 관광에'를 추가한다. '녹색 관광'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문장이 깔끔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녹색 관광에' 대신 '거기에'라는 부사어를 넣어도 된다.
- ⑨ ~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인용을 한 부분을 큰따옴표로 묶어준 문장이다. 직접 인용을 한 부분은 '계획'까지이므로 큰따옴표의 위치를 바꾼다. '이라고'는 직접 인용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뉴욕패션위크 공식 행사 '컨셉코리아 SS12' 성공 개최

한국 패션과 ① K-POP의 만남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한층 더 높아

이날 행사장을 찾은 미국의 ② 유명 셀러브리티인 바네사 허진스(Vanessa Hudgens)는 "컨셉코리아를 통해 한국의 뛰어난 디자이너들의 쇼케이스를 만날 수 있는 멋진 기회였던 것 같다. 한국의 패션은 굉장히 흥미로웠으며 디자이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멋진 의상을 볼 수 ③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패션디자이너협회의 총괄디렉터인 스티븐 코브는 "이번에 참여한 5팀의 디자이너들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면에 ④ 내세우기 보다는, 한국의 미를 현대적인 감성에 맞게 감각적으로 풀어내 뉴욕 현지 패션업계가 ⑤ 반할만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또한 5팀이 각각 개성을 살린 각기 다른 ⑥ 컨셉의 의상들을 선보여 ⑦ 프리젠테이션 내내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지 유명 ⑧ DJ 벅카가 원더걸스, ⑨ 2PM 등 유명 K-POP을 ⑩ 디제잉 하고, 참석자들에게 이를 시디로 증정하는 등 최근 뉴욕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pop과 패션의 접목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상을 더욱 강하게 남겼다.

이번 '컨셉코리아 SS12'에 참여한 디자이너 5팀은 뉴욕 패션시장에서 보다 확고히 인지도를 쌓기 위해 오는 2012년 2월에 열릴 뉴욕패션위크에서 ⑪ 다시 한번 한국의 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① K-POP → 한국 대중음악/한국 대중음악(K-POP)/케이 팝(K-POP)

'k-pop'은 '한국 대중음악'으로 순화할 수 있다.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표현보다 'k-pop'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한국 대중음악(K-POP)'이나 '케이 팝(K-POP)'과 같이 쓰면 된다.

② 유명 셀러브리티 → 유명 인사

'celebrity'는 유명인, 유명 인사라는 의미이므로 '유명 셀러브리티'라는 표현은 '유명'이라는 의미가 두 번 겹쳐 쓰인 표현이다. 'celebrity'는 '유명 인사'로 순화하였다.

③ 있었다"고 → 있었다."라고

문장을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는 문장의 끝에 온점을 찍어야 한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는 '고'가 아니고 '라고'이다.

④ 내세우기 보다는 → 내세우기보다는

'보다'와 '는'은 모두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⑤ 반할만한 → 반할 만한

'반할'은 본용언이고 '만한'은 보조용언이며, 두 단어는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반할 만한'으로 띄어 쓴다. ('불만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⑥ 컨셉 → 콘셉트

'concept'는 '콘셉트'로 표기한다.

⑦ 프리젠테이션 →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은 '프레젠테이션'으로 표기한다.

⑧ DJ → 디제이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에서는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만 쓸 수 있다. '디제이'는 '음반사, 음반지기' 등으로 순화하였다.

⑨ 2PM 등 유명 K-POP을 → 투피엠(2PM) 등 유명 가수의 케이 팝(K-POP)을

'2PM'은 가수 이름이지 노래 이름이 아니다.

⑩ 디제잉 하고 → 디제잉하고

동작성이 있는 단어 뒤에 사용되는 '-하다'는 접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디제잉'이라는 단어는 외국어이지만 '동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다'와 붙여 쓴다. '디제잉'은 순화될 필요가 있는 단어이다.

⑪ 다시 한번 한국의 → 다시 한 번 한국의

'한 번'은 '관형사 + 의존명사'의 구성이므로 띄어 쓴다. '한번'이라는 합성어가 있지만 '한 번'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의미로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합성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붙여 쓸 수 없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독서문화행사 풍성

①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 자치 단체, 도서관 등에서는 국민의 독서 생활화 향상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6,400여 건의 다채로운 독서문화 ② 행사를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책 읽는 재미와 기쁨을 만끽하고, 책과 ③ 친숙해 질 수 있는 ④ '2011 독서나눔 콘서트'는 9월 22일 목요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풍성한 독서 문화 행사 개최

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은 9월 24일(토) 책 베품시장을 열어 다른 이용자 활용 가능한 도서를 직접 판매하는 베품시장을, 강남도서관에서는 중학생이 참여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퀴즈'를 9월 7일(수)에 개최하며, 개포도서관은 '우리는 독서가족' 사진을 9월 14일(수)부터 ⑥ 30일(금) 까지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499건의 행사를 실시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어린이도서관은 9월 18일(일) 오후 2시부터 클로버실에서 우리 가족 독서신문 만들기를 갖는다. 또한 시민도서관에서는 '다문화 한문화가 어우러진 시낭송 음악회'를 9월 23일(금) 오후 4시부터 개최하며, 동구도서관에서는 '엄마랑 나랑 만드는 우리만의 책이야기' 프로그램 등 314건의 다양한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광주광역시 운남어린이도서관은 나만의 책을 만들어 미래 꿈을 이루는 '책 속으로 들어간 공룡', 나만의 책 만들기, 장애인을 위한 '희망·사랑 나눔 독서', 금호평생교육관에서는 9월 7일(수) 오후 3시에 장애인 대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등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139건의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①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전각 기호 낫표(「, 」)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앞뒤에 띄어쓰기를 한 듯한 공백이 생긴다. '9월'과 '「독서의 달」'은 개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하는데, '전각 기호 낫표'의 특성 때문에 '9월'과 '「독서의 달」'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반각 기호'를 쓰면 이와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문장부호 규정에 따르면 '낫표(「, 」)'와 '겹낫표(『 』)'는 세로로 쓴 글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

② 행사를 펼쳐진다. → 행사가 펼쳐진다.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펼쳐지다'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아닌 주어와 호응한다.

③ 친숙해 질 수 있는 → 친숙해질 수 있는

보조용언 '지다'는 언제나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④ '2011 독서나눔 콘서트'는 ~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2011 독서나눔 콘서트'를 ~

목적격조사 '를' 대신 보조사 '는'을 사용한 문장이다. 보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문장과 같이 '대조가 되는 대상이 없는 문장'에서 보조사 '는'을 쓰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목적격조사 '를'을 쓰는 것이 옳다.

⑤ 서울특별시 ~ 실시한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서대문구립도서관에서 9월 24일(토)에 다른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직접 판매하는 베품시장을 열고, 강남도서관에서 9월 7일(수)에 중학생이 참여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 퀴즈'를 개최하며, 개포도서관에서 9월 14일(수)부터 30일(금)까지 '우리는 독서 가족' 사진전을 여는 등 자치 단체와 교육청에서 총 499건의 행사를 실시한다.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장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다.

⑥ 30일(금) 까지 → 30일(금)까지

'까지'는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⑦ 보도 자료 전체

문단마다 하나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독서 문화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각 문단끼리의 통일성이 없다. 모든 문단의 문장 구조를 바꾸어 주어 문단끼리의 통일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단에서 일관성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도 통일하여 준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오픈엑세스 국제 ① 컨퍼런스 10월 26일 개최

- '오픈엑세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 지식 공유의 ② 새장을 연다

세계 오픈엑세스 주간(③ 2011.10.24~10.30)에 즈음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④ '오픈엑세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10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국내외 오픈엑세스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오픈엑세스 홍보와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협력 체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엑세스란 이용료나 저작권과 관계없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각종 학술 연구 성과물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 개발(R&D) 예산에는 연간 ⑤ 약14조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그 연구성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⑥ 공공기금에 의해 수행된 연구성과물을 ⑦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금에 의한 학술성과물의 열린 접근을 목표로 오픈엑세스에 대한 사회적 ⑧ 공감대를 조성하고 인터넷 지식저장소(Repository) 구축사업과 함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학회 및 연구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거버넌스 체제를 ⑨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 정책으로 공공접근정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① 컨퍼런스 → 콘퍼런스

'conference'는 '콘퍼런스'로 표기한다.

② 새장 → 새 장

'새 장'은 '관형사 + 명사'의 구조이므로 띄어 쓴다.

③ 2011.10.24~10.30 → 2011. 10. 24. ~ 10. 30.

'연월일' 뒤의 온점은 각각 '연, 월, 일'을 나타내므로 온점으로 날짜를 나타낼 때는 각각의 숫자 뒤에 모두 온점을 찍는다. '연, 월, 일'은 모두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각각 띄어 쓴다.

④ '오픈엑세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10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10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오픈엑세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다. 하지만 보도 자료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보도 자료에서는 기본적인 어순을 따른 문장을 쓰는 것이 더 좋다.

⑤ 약14조원 → 약 14조 원

'약'은 관형사이므로 뒤의 말과 띄어 쓴다.
 '원'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⑥ 공공기금에 ~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금에 ~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디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를 추가한다.

⑦ 일반 공중이 → 공중이 → 일반인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로 순화되었으므로 '공중' 앞에 굳이 '일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⑧ 공감대를 조성하고 인터넷 지식저장소 구축사업과 함께 → 공감대를 조성하고 인터넷 지식저장소를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대등하지 않은 요소인 '공감대를 조성하고'와 '인터넷 지식저장소 구축 사업'이 접속되어 있으므로, 대등한 요소끼리 접속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⑨ 구축 중에 있으며 → 구축하고 있으며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문화부, 지방자치단체 주관 3D 콘텐츠 제작 사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① 지방자치단체 주관, 3D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다. 예산은 총 15억 원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시관, 홍보관, 체험관, 천문관 등에 상영될 3D 콘텐츠 ② 제작사업에 국가·지방 50% 매칭 조건으로 국고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이하 '문화부') 누리집 알림마당에 소개된 공고문에 따라 ③ 11.3.2(수)~3.18(금)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문화부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⑤ 3월말 전에 보조받을 ⑥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 4월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3D산업 발전전략』을 ⑦ 발표한바 있고 올해부터는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엠에스(DMS) 내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3D 공동 제작시설을 설치(40억 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3D 촬영·편집·변환 등을 할 수 있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45억 원, 1,250명)하는 한편, ⑧ ETRI 등에서 ⑨ 어지러움증 같은 3D 콘텐츠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휴먼팩터 분야의 연구(12억 원)도 추진한다.

⑩ 문화부는 향후에도 ⑪ 3D화·실감화라는 콘텐츠 패러다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① 지방자치단체 주관, 3D영상콘텐츠 제작사업을 → 지방 자치 단체가 주관한 3D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명사가 너무 나열되어 있어 수식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수식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② 제작사업에 국가·지방 50% 매칭 조건으로 → 제작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뜻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쉽게 다듬는다.

③ 11.3.2(수)~3.18(금)까지 → 2011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물결표(~)는 '~부터 ~까지'로 사용되므로 뒤에 굳이 '까지'를 써주지 않아도 된다.

④ 제출하면 되고, → 제출하면 된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체가 다르므로 문장을 두 개로 나눈다.

⑤ 3월말 전에 → 3월 말 전에

'말'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⑥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될 예정이다. → 지방 자치 단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동 표현보다는 능동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다.

⑦ 발표한바 있고 → 발표한 바 있으며

'바'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⑧ ETRI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에서는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만 쓸 수 있다.

⑨ 어지러움증 → 어지럼증

'어지럽다'가 명사형 전성 어미로 활용하면 '어지러움'이 되나 '현기증'을 나타내는 말은 '어지럼증'이 표준어이다.

⑩ 문화부는 ~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보도 자료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나 문법상 옳지 않은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⑪ 3D화·실감화 → 3D화·실감화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에서는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만 쓸 수 있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한 2011년 미디어 정책 대국민 보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미디어산업 진흥 ① 정책개발을 위해 2011년 미디어정책 대국민보고회를 ② 2011. 2. 21(월)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③ 김동욱 교수 사회로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④ 성장'을 주제로 90분 동안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진행된다. 미디어, 방송 광고, 출판 인쇄 등 ⑤ 각 분야별로 참석자들이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활발히 ⑥ 자유 토론한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의 방송작가 고해림, 소설가 조경란, 신문사, 외주제작사, 출판사, 서점 종사자 및 고등학교 교사 등 미디어 산업 정책 고객들이 각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개진한다.

또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참여한 일반 국민 20명도 수용자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⑦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⑧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디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⑨ 지속 수렴해 나가며 국민이 정책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① 정책개발을 위해 →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명사만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어 문장으로 풀어 쓴다.
- ② 2011년 미디어정책 대국민보고회를 2011. 2. 21(월)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2월 21일(월)에 프레스센터에서 '2011년 미디어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의미 전달이 더 잘되게 문장의 어순을 바꾼다.
 '2011년'이라는 정보는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행사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 작은따옴표를 추가한다.
- ③ 김동욱 교수 사회로 → 김동욱 교수의 사회로
 문장의 수식이 어색하므로 관형격 조사 '의'를 추가한다.
- ④ 성장'를 → 성장'을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바른 조사로 바꾼다.
- ⑤ 각 분야별로 참석자들이 → 각 분야에서 참석한 참석자들이
 '각 분야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분야별'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미에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 ⑥ 자유 토론한다. → 자유롭게 토론한다.
 명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수식 구조에 맞게 명사를 관형어의 형태로 바꾸어 준다.
- ⑦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는다. →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참신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참신한 의견'이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아니다. 수식 구조에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 ⑧ 기회가 될 것이다. →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가 될 것이다'는 너무 구어적인 표현이므로 그보다는 조금 더 문어적인 표현으로 바꾼다.
- ⑨ 지속 수렴해 → 지속적으로 수렴해
 명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수식 구조에 맞게 명사를 관형어의 형태로 바꾼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10년 방송 프로그램 수출 규모는 1억 8700여만 달러

지난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은 ①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또 ② 아시아 지역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변화가 없었으나 중남미 지역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이 2010년 방송프로그램 ③ 수출(입) 현황을 집계·분석한 결과, 수출은 2009년 대비 1.89% 증가한 ④ 187,031천달러, 수입은 2009년 대비 84.18% 감소한 10,433천달러로 집계되었다.

⑤ 「장르별」로는 여전히 드라마의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다큐멘터리와 오락 프로그램의 수출에 이어 기타 포맷 판매(2,645천달러)가 처음으로 수출 장르에서 중요한 분야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은 아시아 국가(90%)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액 중 ⑥ 일본(53.9%), 대만(13.2%), 중국(8.8%)이었고, 2010년 중남미 지역으로 대규모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수출함에 따라 중남미 지역이 그 뒤를 이어 7.0%를 기록했다.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의 주요 애로 및 건의 내용으로는, △해외 수출을 위한 재제작 지원 사업의 확대 △⑦ 신규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로드쇼의 확대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 해외 방송콘텐츠 시장 동향 및 관련정보의 정기적 제공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① 소폭 증가한 → 소폭으로 증가한

명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수식 구조에 맞게 명사를 관형어의 형태로 바꾼다.

② 아시아 지역은 ~ 변화가 없었으나 중남미 지역도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 → ~ 중남미 지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

조사 '도'는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아시아 지역에 변화가 없었다면, 중남미 지역에도 변화가 없어야' 조사 '도'를 쓸 수 있다.

③ 수출(입) → 수출입

수출입은 한 단어이므로 괄호를 쓸 필요가 없다.

④ 187,031천달러 → 187,031천 달러 → 1억 8천7백여만 달러

'달러'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187,301천 달러와 같은 표현은 우리나라의 셈법이 아니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⑤ 「장르별」로는 여전히 드라마의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 「장르별」 특징을 살펴보면, 여전히 드라마의 강세가 나타난 가운데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므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문장을 다듬는다.

⑥ 일본(53.9%), 대만(13.2%), 중국(8.8%)이었고, → 일본이 53.9%, 대만이 13.2%, 중국이 8.8%를 차지하였으며,

괄호는 추가 정보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문장부호이므로, 괄호 안의 내용을 생략하더라도 문장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 문장은 괄호 안의 내용을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괄호 안의 내용을 생략할 수 없다. 괄호를 삭제하여 문장을 다듬는다.

⑦ 신규 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로드쇼의 확대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규 시장 개척의 지원을 위한 로드쇼의 확대

업계의 애로 및 건의 내용을 나열한 문장이다. 다른 부분은 명사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명사형 어미로 종결된 문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른 부분들과의 통일성도 맞지 않고, 전체 문장의 구조와도 맞지 않으므로 문장의 구조에 적절한 형태로 바꾼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향유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새만금 관광도시의 미래 모습을 그려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① 3.16일부터 4.18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새만금 관광개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새만금 ② 관광·레저 지구 개발에 대한 미래 수요자인 젊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③ 제안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은 현재 ④ 수립중에 있는 ‘새만금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추진되었다.

새만금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작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만금 사업 소개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9.1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⑤ 『새만금 아리울』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10월 중에는 앱스토어에도 등록하여 ⑥ iOS(아이폰 용) 사용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위치 기반 기능을 활용해 관심지점(POI), ⑦ 증강현실(AR, 실제 사진 위에 가상 정보를 겹쳐서 보여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새만금의 ⑧ 미래상에 대해 보다 쉽고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① 3.16일부터 4.16일까지 → 3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연월일은 한글로 표기할 수도 있고, 온점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월’과 ‘일’은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② 관광·레저 지구 개발에 대한 미래 수요자인 → 관광·레저 지구 개발의 미래 수요자인

‘~에 대하다’라는 표현은 외국어 번역식 표현이므로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③ 제안된 → 공모전에서 제안된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절한 부사어를 넣는다.

④ 수립중에 있는 → 수립되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중’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⑤ 『새만금 아리울』 → ‘새만금 아리울’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려면 작은따옴표를 쓰면 된다.
‘전각 낫표/겹낫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단어 앞뒤의 띄어쓰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⑥ iOS(아이폰 용) 사용자 → 아이폰 사용자

‘iOS’는 아이폰의 시스템 이름이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iOS 사용자’보다 ‘아이폰 사용자’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용’은 접미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⑦ 증강현실(AR, 실제 사진위에 가상 정보를 겹쳐서 보여줌) → 증강현실(AR, 실제 사진 위에 가상 정보를 겹쳐서 보여 주는 것)

괄호 안에 ‘증강 현실’을 정의하는 것이므로 명사로 완결되도록 써 주는 것이 좋다.
‘사진 위에’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⑧ 미래상에 대해 보다 쉽고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 미래상에 더 쉽고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대해’라는 표현은 굳이 필요치 않으므로 삭제한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세계적 예술 특구 독일 스피너라이와 ① MOU 체결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월 15일 세계적 예술 특구 독일 ② 라이프찌히市 스피너라이와 문화 교류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스피너라이에 아시아문화전당 홍보 전용 ③ 파빌리온을 개관했다. 또 우리 작가 2명이 파빌리온에 머물며 ④ 3개월 간 ⑤ 창작 활동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스피너라이는 '방직 공장'이라는 의미이다. 그 본래 명칭은 '바움볼스피너라이(Baumwollspinnerei)'인데, 이곳은 1884년에 설립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방직 공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 나치 독재 시기에 사회주의자와 ⑥ 나찌 저항가들을 위한 비밀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독 정부에 의해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93년 방직 공장의 기능에 중요한 장애가 발생되어 ⑦ 중단되었다. 이후 자동차 타이어용 섬유 생산 공장으로 활용되다가 2000년에 섬유 생산도 완전히 중단되었으나, 2001년 소규모 예술관련 투자자들이 ⑧ 공장을 매입하면서부터 예술가들과 디자이너 등 창의적인 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4년 젊은 예술가들의 첫 ⑨ 쇼케이스로 '베아크사우(Werkschau)'를 개막하면서 세계적 예술 공간으로 알려지기 시작한다.

라이프찌히 시와 비엠더블유(BMW)가 후원하고 있으며, 참가 작가들은 국제예술 커뮤니티로 진출할 수 있고 독일의 각 ⑩ 뮤지움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① MOU → 업무협약

'MOU'는 업무협약으로 순화되었다.

② 라이프찌히市 → 라이프치히 시

독일의 도시 'Leipzig'는 '라이프치히'로 표기한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에서는 외국 문자(한자)를 괄호 안에만 쓸 수 있다. 외국어로 된 지명 뒤에서는 도시를 뜻하는 '시'를 언제나 띄어 쓴다. 한자어로 된 지명 뒤에서는 '시'를 붙여 쓴다. (예: 북경시/베이징 시)

③ 파빌리온 → ?

파빌리온이라는 단어는 순화할 필요가 있다.

④ 3개월 간 → 3개월간

'동안'의 뜻을 나타내는 '-간'은 접미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⑤ 창작 활동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장의 의미에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⑥ 나찌 → 나치

'nazi'는 '나치'로 표기한다.

⑦ 중단되었다. → 운영이 중단되었다.

공장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것이므로 적절한 단어를 넣어 문장을 다듬는다.

⑧ 공장을 매입하면서부터 → 공장을 매입하여

어미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앞 문장은 원인, 뒤 문장은 결과이므로 어미 '-여'를 써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⑨ 쇼케이스 → ?

쇼케이스는 '시험 공연', '선보임 공연'으로 순화하였다. 순화어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단어를 찾아서 순화해야 한다.

⑩ 뮤지움 → 뮤지엄 → 미술관

'museum'은 '뮤지엄'으로 표기한다. '뮤지엄'은 '미술관'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 기자단 30명 활동 시작

- 3. 25. ~ 3. 26. 서울과 광주에서 ① 제 4기 오리엔테이션 열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기자단』은 오리엔테이션 중 하나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인 광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광주, 서울 등 각 거주지에서 활동할 기자단은 오리엔테이션에서만은 지역 구분 없이 팀을 짜서 복불복 게임을 통해 활동비를 획득한 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현재를 취재한다. 취재 후 팀별 발표를 통해 가장 우수한 팀을 선정하여 ③ 상품을 수여해왔다.

2011년 제 4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기자단의 오리엔테이션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오리엔테이션 ④ 첫날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 문화 교류에 대한 설명, ⑤ MBC 시사교양국 정재홍 작가의 강연, 4기와 ⑥ OB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둘째 날은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을 방문하는 한편 광주 곳곳을 취재하는 미션을 수행한 후 취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기자단』은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아 1차 서류전형 2차 제출 과제물 평가를 통해 총 21명의 4기가 선발되었으며 지난 기수 중 활동을 연장하는 9명과 더불어 이번 2011년에는 30명의 대학생기자단이 활동하게 된다. ⑧ 금년에 활동하는 기자단은 다른 해와 달리 <해외팀>이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기자단은 1팀<아문단>, 2팀<인터뷰>, 3팀<문화>, 4팀<기획 특집>, 5팀<해외팀>으로 구성되며, ⑨ 각각 글, 사진, 영상, 그림 등이 구성인원으로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① 제 4기 → 제4기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제-’는 접사이므로 뒤의 말과 붙여 쓴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기자단』은 오리엔테이션 중 하나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 기자단’이 매년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어오고 있는 전통이 한 가지 있다.

문장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③ 상품을 수여해왔다. → 상품을 수여한다.

바로 앞의 문장과 ‘말하는 시점’이 달라 통일성이 없으므로 그 시점을 통일해 준다.

④ 첫날은 → 첫날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 주어를 바꾸어 준다.

⑤ MBC → 문화방송(MBC)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에서는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만 쓸 수 있다.

⑥ OB → 기자단 선배들

‘OB’는 ‘Old Boy’의 약자로서 졸업생을 가리킨다. ‘OB’는 ‘기자단 선배들’로 순화해 준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기자단』은 ~ 활동하게 된다. → ‘제4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아 1차 서류 전형과 2차 제출 과제물 평가를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였다. 지난 기수 중 기자단 활동을 연장하게 된 9명을 포함하여 이번 2011년에는 총 30명의 대학생 기자단이 활동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문장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비문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다.

⑧ 금년에 활동하는 기자단은 다른 해와 달리 →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기자단에

‘기자단’과 ‘다른 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구조에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⑨ 각각 글, 사진, 영상, 그림 등이 구성인원으로 배치되어 → 각각 글, 사진, 영상, 그림 등을 맡은 인원들로 구성, 배치되어

‘글, 사진, 영상, 그림’이 구성 인원이 될 수는 없다. 의미에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8월 26일~28일, 광주시 월드컵음악의 오아시스 펼쳐져

2010년 첫발을 ① 내딛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대중 콘텐츠이자 국제적인 전문음악페스티벌 ② (문화콘텐츠)육성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③ 가족 형 축제를 지향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처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통과 조화의 가치를 깨달게 하는, 문화예술 및 인성 교육에도 매우 ④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전당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재권 사업(음반, 디지털 음원, 부대사업, 머천다이즈),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당의 ⑤ 집객을 활성화시켜, 재정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고 음악 축제의 글로벌 관광브랜드화(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아이의 꿈이 현실이 되는 페스티벌을 콘셉트로, ⑥ 동화속 ⑦ 어린왕자에 생명을 불어넣어 포스터 속 페스티벌 환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빛을 물고 들어가는 모습은 빛고를 광주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⑧ 동,서양의 악기를 연주하는 ⑨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써 ⑩ 전세계인이 함께 ⑪ 즐길수 있는 페스티벌로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① 내딛은 → 내디딘

사전에 따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준말’은 ‘모음으로(ㅇ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내딛다’는 ‘내디디다’의 준말이므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인 ‘-은’과 결합할 수 없다.

② (문화콘텐츠)육성의 → (문화 콘텐츠) 육성의

괄호가 한 단어 사이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괄호의 뒤는 띄어 쓴다.

③ 가족 형 축제 → 가족형 축제

‘그러한 유형’ 또는 ‘그러한 형식’의 뜻을 더하는 ‘-형’은 접미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④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된다는 점이다. →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너무 단정 지어서 서술하고 있다. 문장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띌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다.

⑤ 집객 → 전당의 방문자를 모으는 일

‘집객’이라는 단어는 한자 ‘집(輯: 모을 집)’과 ‘객(客: 손님 객)’을 결합하여 만든 단어인데 표준어가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다. ‘집객’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쓰거나 문장의 표현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

⑥ 동화속 → 동화 속

‘동화 속’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⑦ 어린왕자에 → 어린왕자에게

‘어린왕자’는 사람이므로 조사 ‘에’가 아닌 ‘에게’를 붙인다.

⑧ 동,서양의 → 동서양의

‘동서양’은 한 단어이므로 문장 부호 없이 붙여 쓴다.

⑨ 캐릭터 → 캐릭터

‘character’는 ‘캐릭터’로 표기한다.

⑩ 전세계인이 → 전 세계인이

‘전’은 관형사이므로 뒤의 말과 띄어 쓴다.

⑪ 즐길수 → 즐길 수

‘수’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제5차 한·아세안 문화자원 협력회의’ 성공리에 열려

① 아세안측 캄보디아 삼양 삼 공동위원장, 한국측 박범훈 공동위원장 임명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의 2012년 공연 계획과 ② 신규사업 제안, 6차 협력회의 ③ 계획이 논의되었다. 특히 아시아 전통 실내악단의 새로운 구성과 아시아 전통악기 도감 편찬 등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 사업 내용이 결정되었다. 또한 지난 4차 회의를 통해 ④ 신설하기로 한 예술 감독에는 ‘한·아세안 전통음악위원회’의 한국위원인 최상화(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가 ⑤ 피선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병훈 추진단장은 “삼양 삼 학장의 선임을 축하하며, 아시아전통음악위원회의 지원에 ⑥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세안측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삼양 삼 학장은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의 ⑦ 지속적인 발전과 아세안측과 한국의 협업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⑧ 아시아 전통실내악단 창단은 각 국가에서 추천된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곡을 기반으로 편성되며 2012년 8월에 열릴 예정인 ‘제2회 아시아문화주간’에서 ⑨ 첫 선을 보일 계획이다.

악기도감은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 포함된 52종 악기에 대한 설명을 담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도감 편찬을 위해서 각국에서 추천된 음악 전문가들이 실무 작업을 ⑩ 진행하여 2012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실내악단 창단과 도감 편찬은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의 질적 발전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 2014년 개관에 앞서 체계적이고 풍부한 콘텐츠를 ⑪ 확보하는 한편 민속음악 교과 자료,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아시아 음악의 가치를 세계시장에 알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① 아세안측 → 아세안 측

‘측’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② 신규사업제안 → 신규 사업 계획

‘신규 사업 제안’을 논의할 수는 없다. 서술어에 맞게 표현을 다듬는다.

③ 계획이 논의되었다. →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의존명사 ‘등’을 추가하여, 문장이 전체적으로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④ 신설하기로 → 새로 선임하기로

‘신설’은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한다’는 뜻이므로, ‘예술 감독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피선되었다. → 선임되었다.

‘피선’은 ‘선거에 의해 뽑혔을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이므로 이 문장에는 적절하지 않다.

⑥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큰따옴표의 위치가 잘못되었으므로 그 위치를 수정한다.
‘것이라고’와 ‘밝혔다’는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⑦ 지속적인 발전과 아세안측과 한국의 협업을 위하여 →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아세안 측과 한국 측의 협업을 위하여

관형격 조사 ‘과’가 반복되어 쓰여, 문장의 수식 구조가 모호하게 되었다. ‘그리고’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다듬는다.

⑧ 아시아 전통실내악단 창단은 → 아시아 전통실내악단이 연주할 곡들은

주어가 뒤에 나오는 서술어 ‘편성되다’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서술어에 맞게 주어를 바꾼다.

⑨ 첫 선 → 첫선

‘첫선’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⑩ 진행하여 2012년 → 진행하며, 도감 편찬은 2012년

뒤 문장의 주어가 없으므로 적절한 주어를 추가한다.

⑪ 확보하는 한편 민속 → 확보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감은 민속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을 끊고, 앞의 문장에는 적당한 서술어를 추가하고 뒤의 문장에는 주어를 추가한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1 한·중·일 장애인미술 첫 교류전 열린다

한·중·일 3국 장애인 미술가들의 첫 교류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2 “2011 한·중·일(韓中日) 장애인미술 교류전”이 오는 4월 13일(수) 4시부터 17일(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3 한·중·일 3국의 장애인미술작가들의 최초 전시행사로 중국과 일본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 각종 문화예술 및 복지 추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국장애인연합회와 일본채리티협회의 참여로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 작품 100점, 중국 작품 30점, 일본 작품 50점 등 3국의 장애인 미술작가의 작품 4 18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13일(수) 오후 4시 개막식에는 한국 대표로 교류전을 함께 준비해 온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김충현 회장(척수장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용홍 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하며, 중국장애인연합회 부주임, 일본채리티협회 5 오오헤나오키 6 상무이사외 중국과 일본의 대표단도 참석할 계획이다.

7 이번 교류전을 통해 8 사회 속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편견들을 없애고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장애인미술인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시키며 9 각국이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나아가 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10 “예술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미술 작가 100여 명이 참가한 한중 장애인 미술 교류전이 2010년 9월과 11월에 각각 서울과 북경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1 한·중·일 장애인미술 → 한·중·일 장애인 미술

‘한·중·일 장애인 미술’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붙여 쓸 수 있는데, ‘한·중·일 장애인 미술’은 고유명사나 전문용어가 아니므로 붙여 쓸 수 없다.

2 “2001 ~ 교류전 ”이 → ‘2001 ~ 교류전’이

‘따옴표’는 ‘따옴표로 묶어주는 단어’와 붙여 쓴다.

3 한·중·일 3국의 장애인미술작가들의 최초 전시행사로 → 한·중·일 3국 장애인 미술 작가들의 작품으로 열리는 최초의 전시 행사로

명사만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의미가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으로 풀어 쓴다.

‘의’를 두 번 겹쳐 적는 것은 좋지 않다.

4 180여점 → 180여 점

‘점’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5 오오헤나오키 → 오오헤 나오키

일본 이름은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6 상무이사외 → 상무이사 외

‘외’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7 이번 교류전을 통해 ~ 계기가 될 것으로 → 이번 교류전이 ~

문장 성분끼리의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되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8 사회 속 자리 잡고 있는 →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사격 조사 ‘에’를 넣어 주어 문장을 더 매끄럽게 다듬는다.

9 각 국 → 각국

‘각국’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0 예술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 ‘예술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려면 ‘큰따옴표’가 아닌 ‘작은따옴표’를 써야 한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감소 추세

① 이는 상반기 출판활동단속(228건, 7,430점 적발) 대비 ② 건별로는 6% 감소, ③ 점수로는 22%가 감소한 수치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점차 감소하는 ④ 추세에 있으며

특히 ④ 대학교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는 지난 상반기(111건 3,499점 적발) 대비 건별로는 20% 감소(89건), 점수로는 30%가 감소(2,452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 주요 적발사례로는 불법복사업주가 수거 활동에 거센 반발을 하며 단속반원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⑤ 사례도 있었으며 단속반원과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법복제물은 ⑥ 전량 수거되었다.

또한 광주 지역 모 대학의 경우, 복사실 뒤쪽에 불법복제물 보관 창고를 마련해 놓고 ⑦ 대량으로 보관하는 사례가 ⑧ 적발돼 불법복제서적 406부를 전량 수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⑨ 영리·상습업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교 구내의 불법복사업소 89곳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 및 교육과학부에 통보하여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① 이는 ~ 추세에 있으며 → ~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서술어 구를 다듬는다. 문장이 너무 기므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눈다.

② 건별 → 건수

문맥상 '건에 따른'을 뜻하는 '건별'이 아닌 '사물이나 사건의 가짓수'를 뜻하는 '건수'를 쓰는 것이 맞다.

③ 점수 → 점 수 → 복사물 개수

'점'과 '수'는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점'은 의존명사이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점'을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적당한 다른 단어'로 바꾸어 준다.

④ 대학교내 → 대학교 내

'내'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⑤ 주요 적발사례로는 ~ 사례도 있었으며 → 주요 적발 사례 중에는 ~ 사례도 있었다.

의존명사 '중'을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해 준다. 어미 '-으며'는 '두 가지 이상의 사례나 동작을 나열'해 주는 어미인데, 이 '두 가지 이상의 사례나 동작'은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주요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는 것'과 '불법복제물 전량이 수거된 것'은 전혀 연관이 없으므로 어미 '-으며'를 사용해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⑥ 전량 수거되었다. → 전량이 수거되었다.

'전량'은 명사이므로 '수거되다'를 수식할 수 없다. 주격조사 '이'를 넣어 문장 구조를 다듬는다.

⑦ 대량으로 보관하는 → 복사물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보관하는'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적당한 목적어를 넣어준다.

⑧ 적발돼 불법복제서적 406부를 전량 수거했다. → 적발되었으며, 해당 불법복제서적 406부는 전량을 수거했다.

'적발되다'의 주어와 '수거하다'의 주어는 달라야 하므로 '수거하다'와 어울리는 주어를 추가한다.

⑨ 영리·상습업자에 대해서는 → 영리·상습 업자는

'~에 대해서는'과 같은 표현은 외국어 번역식 표현이므로 쓰지 않아도 의미가 통할 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문화부, 저작권 정책 대국민 현장 업무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를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저작권교육원에서 개최한다.

②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금번 업무보고는 콘텐츠, 문화·예술, 미디어 분야에 이어 5번째로 ③ 개최된다. 이번 보고회에는 ④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50여 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신탁단체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⑤ 보고에서는 소설가, 작곡가, 가수, 연기자 등 전통적인 창작자 외에도 새로이 저작권 정책 이슈로 부각되는 ⑥ 영역의 종사자인 건축가, 장애인, 앱 창작자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 의견을 제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이슈, ▲ 현장 창작자의 ⑦ 권리보호 라는 주제로 ⑧ 정책고객 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시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3월부터는 산업 분야별, 쟁점별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해당되는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은 올 상반기 내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를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저작권교육원에서 개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저작권교육원에서 저작권 정책 분야의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를 개최한다.

문장의 어순을 조금 바꾸어 서술어와 목적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② ‘모든 ~ 한다.’는 → ‘모든 ~ 한다’는/“모든 ~ 한다.”라는

인용에는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이 있는데, 간접 인용을 할 때는 따옴표를 쓰지 않지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간접 인용이 된 문장의 끝에는 온점을 찍지 않아야 하며, 직접 인용을 할 때는 큰따옴표를 쓰고 조사 ‘라고’를 써야 한다.

③ 개최된다. → 개최되는 것이다.

문장의 의미상 문장의 구성이 ‘무엇이 무엇이다’의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그에 맞게 서술어를 바꿔 준다.

④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계, 학계, 일반 국민 50여 명과 → ~ 일반 국민 등 50여 명과

‘문화 예술 ~ 일반 국민’을 아우르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의존명사 ‘등’을 추가한다.

⑤ 보고에서는 → 보고회에서는

전통적인 창작자들이 참석한 것은 ‘보고’가 아니고 ‘보고회’이다.

⑥ 영역의 종사자인 건축가, 장애인, 앱 창작자 → 영역과 관련된 건축가, 장애인, 앱 창작자

‘장애인’이 새롭게 부각되는 영역의 종사자인 것은 아니다. 단어들 간의 수식 구조가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⑦ 권리보호 라는 → 권리보호라는

‘라는’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⑧ 정책고객 들이 → 정책 고객들이

‘-들’은 접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2011년 10월까지 한국 전통문양원형¹ DB 99,057건
구축 서비스

올해에도 ² 1만9천 5백여 건의 전통문양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어 무료로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및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최창학)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고유의 문화재, 고 건축물 등에 내포되어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전통문양을 추출하여, 원시문양, 개별문양, 활용문양 등 총 79,547건의 한국 전통문양원형데이터베이스를 문화포털(www.culture.go.kr) 및 모바일 웹사이트(m.culture.go.kr)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올해에도 4,800점의 문화유산에서 전통문양 19,510건을 추출하여 ³ 추가 서비스 한다. ⁴ 이에따라 2011년 10월까지 99,057건의 한국 전통문양원형 ⁵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까지 전통문양 복식문이 잡지 기사에 ⁶ 소개 되었고, 물고기문이 스마트폰의 ⁷ SMS 배경화면, 기하문이 수학교재 화보, 식물문이 제품 포장지 등에 활용되었다.

2010년에는 산업적 활용을 위한 한국공예디자인협회 및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등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 전통문양 콘텐츠 활용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디자인과 스마트폰 ⁸ QR코드 활용 사례를 발굴하였다. 2011년 4월 15일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의 '2011년도 국가DB사업 관계기관 ⁹ 워크샵'에서 2010년도 국가DB 사업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다.

최근 전통 산업, 전자 제품,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통문양이 활용됨에 따라 산업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양이 디자인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 DB → 디비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에서는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만 쓸 수 있다. '디비'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이다.

2 1만9천 5백여 건 → 1만 9천5백여 건

숫자는 '만 단위'로 띄어서 쓰므로 '1만 9천5백'으로 띄어 써야 한다. '-여'는 접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쓰고, '건'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3 추가 서비스 한다. → 추가로 서비스한다.

'서비스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추가'는 명사여서 '서비스하다'를 꾸밀 수 없으므로 부사어의 형태인 '추가로'로 바꾸어 준다.

4 이에따라 → 이에 따라

'이에 따라'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5 데이터베이스 → 디비/디비 → 데이터베이스

보도자료 전체에서 '데이터베이스'란 단어와 '디비'란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와 '디비'는 같은 단어이므로, 한 보도자료 안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하여 쓰는 것이 좋다.

6 소개 되었고 → 소개되었고

'소개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7 SMS → 문자 메시지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에서는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만 쓸 수 있다.

8 QR코드 → 큐아르(QR) 코드

QR 코드는 '정보 무늬'로 순화되었다. '정보 무늬'로만 썼을 때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정보 무늬(QR 코드)'와 같이 써 주면 된다.

9 워크샵 → 워크숍

'workshop'은 '워크숍'으로 표기한다. 워크숍은 '연수회'로 순화하였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눈높이 정책 ① 취재’정책 기자단 4기 활동 시작

정책기자단은 ②흔히 어렵게 생각하는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③풀어쓰는 일을 합니다. 정책은 ④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책기자단은 이런 정책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책 내용과 효과를 살펴 알려줍니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책기자단은 2008명 30명으로 ⑤출발했습니다. 이듬해 120명, 2010년에는 240명으로 ⑥규모가 늘었습니다. 올해 정책기자단은 총 163명인데요, 전국의 남녀노소가 함께합니다.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부터 50대 어르신까지 다양합니다. 다문화가족도 두 명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눈높이에서 전국 각지의 정책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정책을 알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 정책이라는 것이 무겁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살며 시 ⑦스며든 것이라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20대 정책 기자는 자신이 쓴 주부 창업 기사를 본 주부로부터 “글을 읽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일에 ⑧도전해보겠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또 50대 재취업자 지원 정책을 다룬 기사를 본 20대 구직자로부터도 감사 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50대 어르신에 비하면 전 아직 어리잖아요. 더 넓은 시각을 보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힘을 얻고 갑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① 취재’정책 → 취재’ 정책

‘취재 정책’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② 흔히 어렵게 생각하는 정책을 → 흔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정책을

정책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과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풀어쓰는 → 풀어 쓰는

보조용언은 경우에 따라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나, ‘풀어 쓰는’의 ‘쓰다’는 보조용언이 아닌 본용언이기 때문에 앞의 말과 붙여 쓸 수 없다.

④ 국민 ~ 이런 정책소비자의 → 국민 ~ 이런 국민의

‘이런’이라는 관형어는 바로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킨다. ‘정책 소비자’와 ‘국민’은 문맥상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런’이라는 관형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앞에서 사용한 어휘를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⑤ 출발했습니다. 이듬해 → 출발했는데, 이듬해

너무 짧은 문장들이 연이어 나타나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⑥ 규모가 늘었습니다. → 규모가 점점 늘었습니다.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어 ‘점점’을 넣어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해 준다.

⑦ 스며든 것이라는 → 스며들어 있는 것이라는

‘스며든 것’이라는 말은 ‘동작’과 관련되어 있다면, ‘스며들어 있는 것’이라는 말은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정책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라고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⑧ 도전해보겠다”라는 → 도전해보겠다.”라는

‘직접 인용’이 된 문장의 끝에는 온점을 찍어 줘야 한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문화부 장관, ① 토랑추기경과 ② 종교간 화합의
중요성 및 역할 공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하얏트 호텔에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인 장 루이 토랑 ③ 추기경 일행과의 오찬을 같이 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화부 장관은 '종교 화합과 대화를 위한 교황청의 실천'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추기경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종교간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토랑 추기경은 요즘 ④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과 문화 파괴 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 한국은 모든 국민이 과거와 역사를 잘 보존하고 서로 화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⑦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종교 간 화합이 잘되는 나라로 소개하고,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아픔을 종교가 치유하고 또, 그것이 사회 화합을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⑧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의 성지 방문 등, 적극적인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이웃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토랑 추기경은 한국의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 ⑨ 공감하시고, 지금 젊은 세대는 매사를 투쟁 혹은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대화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랑 추기경은 종교 간에는 '다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한국의 공통 사상들(총호 사상 등)을 통해 종교 간 공통 가치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① 토랑추기경 → 토랑 추기경

이름과 그에 덧붙는 관직명은 띄어 쓴다.

② 종교간 → 종교 간

'간'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종교간대화평의회'는 고유명사이므로 '간'을 굳이 띄어 쓰지 않아도 된다.)

③ 추기경 일행과의 오찬을 같이 하였다. → 추기경 일행과 오찬을 같이하였다.

관형격조사 '의'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의'를 삭제해 준다. 관형격조사 '의'가 사용되려면, 문화부 장관, 추기경 외에도 오찬을 같이하는 사람이 문장 속에 제시되어야 한다.

④ 세상에는 → 세상에서는

'전쟁과 문화 파괴 등이 일어나는 것'은 행동이기 때문에 조사 '에서'를 써 주어야 한다.

⑤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 한국은 → 일어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어미 '-는데'와 '반면' 모두 '역접'의 의미를 나타낸다. 두 가지가 겹쳐 쓰일 필요가 없으므로 어미 '-는데'를 다른 어미로 바꾸어 준다.

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정병국 장관은

보도자료 전체에서 굳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고만 적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토랑 추기경은 이름을 적어주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함만을 적어주는 것이 더 어색하다.

⑦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 우리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되지 않는다.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되고, 문장의 의미가 더 잘 전달되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⑧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의 성지 방문 등 →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의 성지를 방문하는 등

주어인 '종교 지도자들이'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으므로 적당한 서술어를 넣어 준다.

⑨ 공감하시고 → 공감하고

존대법은 주관적 표현이므로 보도 자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유행에 민감했던 '모던걸', 한복에 하이힐을 신다

문화역 서울 284가 오는 10월 21일부터 열흘간 한복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장소로 바뀐다.

한복 패션쇼는 10월 21일 오후 5시부터 '한복, 근대를 거닐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패션쇼는 김영진, 박선옥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현대적 감각의 차세대 디자이너 6인의 무대로 구성되며, 본 공연에서는 '모던걸', '무용가 최승희', '근대 여학생' 등 근대 아이콘을 모티브로 ① 재창조한 한복이 소개된다.

② 스타일리스트 ③ 서영희씨가 총 예술감독을 맡아 ④ 디테일한 소품까지 신경을 써서 현대적인 ⑤ 한복 스타일링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에 한복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패션쇼에 선보인 작품 중 ⑥ 한점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11월 3일부터 열리는 '문화유산박물관회'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문화역서울 2층에서 열리는 기획전에서는 '신여성-근대의 패션리더'라는 주제로 유행에 민감했던 근대의 여학생·신여성의 패션·소품을 전시하고,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신문 만평 등을 이미지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근대 여학생 교복은 해당 학교에서 보존하고 있는 실물자료가 거의 없어 본 행사를 위해 ⑦ 재현하였는데 전시 후 해당 학교에 ⑧ 기증하여 보존될 예정이라 더욱 뜻 깊다.

행사 기간 동안 한복에 대한 관심을 ⑨ 제고하기 위해 '한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한복세미나'도 열린다. 이 행사는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문화역서울 284 RTO공간에서 개최되며, 한복에 ⑩ 관심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⑪ '전통 및 근대 복식사'는 고부자 전 단국대 교수, '한복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근대풍경'이라는 주제로 최경원 교수, 마지막으로 이해순 한복 디자이너에게서 '재해석하는 한복의 미'를 배워보는 흔치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① 재창조한 한복이 → 재창조된 한복이

'한복'이 스스로 '재창조'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동 표현으로 써 주는 것이 적절하다.

② 스타일링/스타일리스트 → ?

순화할 필요가 있는 단어이다.

③ 서영희씨가 → 서영희 씨가

'씨'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④ 디테일한 → 세세한

'디테일하다'는 외국어이므로 우리말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

⑤ 한복 스타일링이 선보여질 → 한복 스타일링을 선보일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피동 표현보다는 능동 표현으로 써 주는 것이 좋다.

⑥ 한점은 → 한 점은

'한'은 관형사이고, '점'은 의존명사이므로 두 단어는 띄어 쓴다.

⑦ 재현하였는데 전시 후 → 재현하였는데 이 자료는 전시 후

뒤 문장의 주어가 없으므로 적당한 주어를 넣어 주어 문장이 깔끔하게 되도록 한다.

⑧ 기증하여 → 기증되어

'기증하여'의 뒤에 '보존될'이라고 피동 표현을 썼으므로 '기증하여'도 피동 표현인 '기증되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⑨ 제고하기 → 높이기

'제고하다'는 '높이다'로 순화하였다.

⑩ 관심있는 → 관심 있는

'관심있는'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⑪ '전통 ~ 것이다' → 세미나는 고부자 전 단국대 교수의 '전통 및 근대 복식사', 최경원 교수의 '한복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근대 풍경', 이해순 한복 디자이너의 '재해석하는 한복의 미' 등으로 진행되며, 이 세미나는 한복에 대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장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게 문장을 다듬는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시작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은 학생선수 운동 능력 ① **항상** 뿐 만 아니라 (성) 폭력, 부조리 등 학교 운동부 운영의 부작용 발생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함에도 지금까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학교 현장 배치 이후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직무 교육은 지도자로서의 인성 함양과 지도 역량 배양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전반적인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교육 내용도** 훈련설계, 코칭과학, 능력개발 등 경기력 증진을 위한 지도 역량 ③ **배양과** 더불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도 상당한 비중으로 진행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성 함양을 위해 ④ **스포츠맨십교육**, 코칭 윤리와 선수인권, 도핑 방지 교육, 스포츠 정책 등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을 시작으로 ⑤ **추후** **년차적으로** 교육인원을 늘려 2013년까지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과정 ⑥ **미 이수시**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작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기존 경험 위주의 학생선수 지도 방법에서 탈피하여 지도자의 체계적·과학적 지도 능력 배양으로 학생선수 육성효과를 ⑦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⑧ **뿐 만** 아니라 일선 학교운동 현장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 ⑨ **(성)폭력, 승부조작 등 부조리** 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가 조기 정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① **항상** **뿐 만** → **항상****뿐만**

‘뿐’과 ‘만’은 모두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② **교육 내용도** → **이번 교육에서는**

문장 성분끼리 호응하지 않는다. ‘교육 내용’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미에 맞게 주어를 바꾸고, 조사를 조정한다.

③ **배양과** → **배양에 대한 교육과**

직무 교육에서 진행되는 것은 ‘배양’ 그 자체가 아니고, ‘배양에 대한 교육’이다.

④ **스포츠맨십교육** → **스포츠맨십 교육**

‘sportsmanship’은 ‘스포츠맨십’으로 표기한다. ‘스포츠맨십’도 순화할 필요가 있다.

⑤ **추후** **년차적으로** **교육인원을 늘려** → **매년 교육 인원을 점차 늘려**

‘추후’라는 단어는 의미상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뺀다. 어두에서 ‘年’은 ‘연’으로만 표기한다. ‘年’이 의존명사나 접사로 쓰일 경우에는 ‘년’으로 표기한다. 의미상 ‘연차적으로 늘리다’란 표현은 어색하므로 문장의 의미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듬는다.

⑥ **미 이수시** → **미이수 시**

‘그것이 아직 아닌’ 또는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미-’는 접두사이므로 뒤의 말과 붙여 쓴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시’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⑦ **극대화하는데** → **극대화하는 데**

‘일’이나 ‘것’을 뜻하는 ‘데’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어미 ‘-는데/-는데’와 구별하여 써야 한다. 어미 ‘-는데/-는데’는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문장에서 ‘역접’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존명사 ‘데’가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⑧ **뿐 만 아니라** → **그뿐만 아니라**

‘뿐’과 ‘만’은 모두 조사이므로 체언에 붙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적당한 체언을 앞에 넣어 준다.

⑨ **(성)폭력, 승부조작 등 부조리 등의** → **(성)폭력, 승부조작 등 부조리의**

불필요하게 ‘등’이 두 번 쓰였으므로 ‘등’ 하나를 삭제한다. (성)폭력, 승부조작도 부조리에 포함된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다양한 책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책에 취하는
서울와우북페스티벌

- ① 9.28(수)~10.3(월) ② 100여개 출판사 및 작가, ③ 아티스트, 시민단체 참가

④ 10월 1일(토) 개막행사에는 국내 최초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이익선씨의 사회로 김국원 작가가 동양화 기법을 타 장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드로잉 퍼포먼스를 펼치고 인디가수 '박솔' 등이 어우러져 화려한 개막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10월 2일(일)에는 한국 ⑤ 캘리그래피의 개척자인 이상현 작가가 어쿠스틱 밴드 송 브리즈와 협연하여 캘리그래피와 음악의 조화를 보여 준다. 그 외 아트워크 집단인 '마스터 브릿지', 싱어송라이터 '양창근' 등이 공연을 펼친다. 거리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3일(월)에는 마포구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로컬 콘서트를 열어 ⑥ 마포구 만의 특징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축제는 만화를 특별 행사 주제로 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국타이포그래피협회의 <만화 ⑦ 타이포그래피>와 청강문화산업학교 서승택 교수가 진행하는 '웹툰 만화 세상'이 과거 만화 작가들부터 현재 유명한 웹툰 작가까지 ⑧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만화 관련 색션을 정하여 만화 산업에 대한 심층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판타스틱서재 프로그램에서는 저자와 독자가 책을 떠나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알랭 드 보통'이 사인회로 독자들과 만나고 한국 ⑨ SF소설 최초로 복각판이 발간된 <하이어드>의 김상현 작가와 <신의 궤도>로 SF소설 붐을 일으키고 있는 배명훈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SF소설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① 9.28(수)~10.3(월) → 9. 28.(수) ~ 10. 3.(월)

'연월일' 뒤의 온점은 각각 '연, 월, 일'을 나타내므로 온점으로 날짜를 나타낼 때는 각각의 숫자 뒤에 모두 온점을 찍어 줘야 한다. '연, 월, 일'은 모두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각각 띄어 쓴다.

② 100여개 → 100여 개

'개'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③ 아티스트 → 예술가

'아티스트(artist)'는 '예술가'로 순화하였다.

④ 10월 1일 ~ 예정이다. → 10월 1일(토) 개막 행사는 국내 최초의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인 이익선 씨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날 행사에서는 김국원 작가의 동양화 기법을 타 장르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드로잉 퍼포먼스와 인디가수 '박솔'의 공연 등이 어우러진 화려한 개막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씨'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드로잉 퍼포먼스'는 순화할 필요가 있는 단어이다.

문장이 전체적으로 비문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⑤ 캘리그래피 → 캘리그래피

'calligraphy'는 '캘리그래피'로 표기한다.

⑥ 마포구 만의 → 마포구만의

'만'은 조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⑦ 타이포그래피 →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는 '타이포그래피'로 표기한다.

⑧ 한 자리에서 → 한자리에서

'한자리'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⑨ SF소설 → 공상과학소설(SF)

'SF'는 'science fiction'의 약자이므로 'SF'에는 이미 '소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SF' 뒤에 '소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외래어인 '에스에프'를 쓰는 것보다 '공상 과학 소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형제의 나라 터키에 21번째 한국 문화원 10월 13일 개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터키 앙카라에 한국 문화원을 개원한다.

① 이번 터키 한국문화원은 전 세계 한국문화원 중 21번째 개원이며, 유럽에 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폴란드, 스페인에 이어 7번째 개원이다.

②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으로써 미국, 유럽 등 서방 및 중동 대부분의 지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한국전 참전 이래 한국의 오래된 우방국이다. 한국전 당시 ③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많은 병력인 ④ 15,000명의 터키군을 파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이후 양국 간의 우호 감정은 더욱 ⑤ 공고해졌으며, 터키 내에서는 최근에 4만 명에 이르는 한국 팬클럽이 활동하면서 한국 및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애정을 보이는 등 터키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다. ⑥ 이러한 터키의 지정학적 이점 및 국제 관계의 여러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 및 기대에 부응코자 이번에 터키 앙카라 한국문화원을 개원하게 된다.

앞으로 터키 한국 문화원은 한국 케이 팝 콘테스트 개최, 한국영화 정기 상영, 버디(한국 유학생과 터키 현지인 친구 맺기) 프로그램 운영, 각종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한류 확산, 한국에 대한 친근감 조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을 ⑦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⑧ 한국문화원이 한국 문화의 일방적 소개 활동이 아니라, 양국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계획이다.

① 이번 ~개원이다. → 이번 터키 한국 문화원은 전 세계 한국 문화원 중에서는 21번째로 개원하는 것이며, 유럽 한국 문화원 중에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폴란드, 스페인에 이어 7번째로 개원하는 것이다.

문장이 전체적으로 비문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어 준다.

②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으로써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는 '로서'이다.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 도구'나 어떤 물건의 '원인, 원료' 등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③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단어를 나열할 때는 심표를 써야 한다. 의미가 조금 더 잘 전달되도록 단어를 조금 바꾸어 준다.

④ 15,000명의 터키군을 → 15,000명을 '병력'은 '군대의 인원이나 그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터키군' 자체가 '병력'이 될 수는 없다. 터키에서 파병한 군인이면 당연히 '터키군'이므로 굳이 '터키군'이라는 정보를 제시해줄 필요는 없다.

⑤ 공고해졌으며 → 공고해졌으며 보조용언 '지다'는 언제나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⑥ 이러한 ~ 된다. → 이번 터키 앙카라 한국 문화원의 개원은 터키의 지정학적 이점 및 국제 관계에서의 여러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터키 내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 및 기대에 부응코자 이루어졌다. 문장이 전체적으로 비문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⑦ 적극 추천할 → 적극적으로 추천할 명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수식 구조에 맞게 명사를 관형어의 형태로 바꾸어 준다.

⑧ 한국문화원이 ~ 계획이다. → 한국 문화원이 한국 문화의 일방적 소개 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양국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방적 소개 활동'과 '양국 문화의 교류의 장'은 의미상 대등하지 않다. '일방적 소개 활동'에도 '어떤 장소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고, 전체 문장을 조금 다듬어 준다. '자리매김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1 세계속의 한국의 창 'THE KOREA BLOG' 개설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가 살아 숨쉬는 현장을 생동감 있게 2 전달해주는 영문 블로그가 문을 새로 연다.

'THE KOREA BLOG' 영문 명칭은 3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으며, 이 블로그는 정부 사이트가 자칫 외국인들에게 틀에 박혀 낡고 4 진부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친근하고 세련된 현대 한국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롭게 개편된 블로그에서는 한국의 숨은 명소, 패션, 한류 현장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의 매력을 진정성을 갖고 소박하게 담아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튜브 선정 우수 비디오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브 밀러(Steve Miller, 미국) 등 2명을 'THE KOREA BLOG'의 고정 블로거로 참여토록 했다. 이들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진솔하게 전함으로써 5 외국인 네티즌과의 6 공감대 형성에 다가 서게 될 것이다.

7 구체적인 카테고리 살펴보면, 한국의 문화예술, 라이프스타일, 여행, 명소, 현장 리포트 등이며 패션·IT·산업기술 분야의 새로운 브랜드도 소개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해외문화홍보원은 'THE KOREA BLOG'를 개설하면서 블로그 커뮤니티 파트너인 글로벌 기자단을 모집한다.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교포 중에서 50여 명을 선발하는데, 이들은 8 한국의 트렌디한 문화 및 해외에서 있었던 한국 관련 행사에 대한 소개, 행사 참관기 등의 글을 쓰게 된다.

이와 동시에 블로그 개설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Korea'가 들어간 사진을 찍어 축하 글과 함께 트위터(@koreanet) 또는 이메일(webmaster@korea.net)로 보내 후 블로그 공지 사항(notice) 9 이벤트에 10 댓글(comment)을 달면 우수작을 선정해 문화상품권과 공연 관람권 등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1 세계속의 → 세계 속의
'세계 속'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 2 전달해주는 → 전달해 줄
보도 자료가 배포될 시점을 고려하면 '전달해 줄'이라는 표현을 써 주는 것이 더 좋다.
- 3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으며 →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문장이 전체적으로 비문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 4 진부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한계 → 진부한 소리만을 전달할 수도 있는 한계
'전달할 수 있는'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표현이므로 문장 전체의 의미와 맞지 않다. 보조사 '도'를 넣어 주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의 의미가 되도록 한다.
- 5 외국인 네티즌 → 외국 네티즌 → 외국 누리꾼
'네티즌'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
네티즌(netizen)은 '누리꾼'으로 순화하였다.
- 6 공감대 형성에 다가 서게 될 것이다. → 공감대를 형성해 갈 계획이다.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다듬는다.
- 7 구체적인 ~ 될 것이다. → 블로그의 구체적인 카테고리에는 한국의 문화 예술, 라이프 스타일, 여행, 명소, 현장 리포트 등이 있으며, 블로그를 통해 패션, IT, 산업기술 분야의 새로운 브랜드도 소개하게 된다.
문장이 전체적으로 비문이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 8 한국의 트렌디한 문화 → 한국에서 유행하는 문화
트렌드(trend)는 '유행, 경향'으로 순화하였다.
- 9 이벤트 → 행사
이벤트(event)는 '행사'로 순화하였다.
- 10 댓글 → 댓글
표준어는 '댓글'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콘텐츠 미래전략포럼 11월 14일 출범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미래전략포럼이 발족된다.

① 위원장은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와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포럼을 총괄한다. ② 포럼은 매일 1개의 지정 주제에 대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활동 기간 중 내외부에서 제안되는 자유 주제도 다루어서 광범위한 내용의 아이디어 교환과 이에 대한 정책화 ③ 연구를 시행한다. 조찬 포럼, 현장 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도 분기 또는 ④ 수시 개최함으로써 상호 의견 교환과 현장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 경제, 인문 콘텐츠, 경영, 산업 조직, 행정 등 각 분야의 학회장 또는 회원이 참여하여 이들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도 기획, ⑤ 운영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의 관심 제고 및 연구 활동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최근 스마트 환경, 융합형 ⑥ 생태계 하에 ⑦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⑧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⑨ 포럼 출범식은 안문석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원광연 카이스트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① 위원장은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와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와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이 겹쳐서 사용되었으므로 앞에 나오는 ‘위원장은’을 삭제한다.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관명 + 직함’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통일성을 위해 ‘한국뮤지컬협회장’도 ‘기관명 + 직함’의 구성인 ‘한국뮤지컬협회 회장’으로 바꾼다.

② 포럼은 ~ 연구를 시행한다. → 포럼은 ~ 연구를 시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앞 문장의 서술어와 뒤 문장의 서술어 모두와 호응하여야 하므로 고칠 수 없다. 그러므로 서술어 부분을 문법 구조에 맞게 바꾼다.

③ 수시 개최함으로써 →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명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수식 구조에 맞게 명사를 관형어의 형태로 바꾼다.

④ 운영함으로써 → 운영함으로써

어떤 일의 ‘수단, 도구’나 어떤 물건의 ‘원인, 원료’ 등을 나타내는 조사는 ‘로써’이다. ‘공동학술대회를 기획, 운영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여러 분야의 관심을 높이고,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의 원인이 되므로 조사 ‘로써’가 아닌 ‘로써’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생태계 하에 → 생태계하에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하’는 접미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⑥ 지속가능한 → 지속적인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명사 ‘지속’이 동사 ‘가능하다’를 꾸미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법상 옳지 않은 표현이다.

⑦ 비즈니스 → 비즈니스

‘business’는 ‘비즈니스’로 표기한다.

⑧ 포럼 출범식은 안문석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함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원광연 카이스트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 포럼 출범식에서는 안문석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 뒤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원광연 카이스트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비문이므로 문장 구조에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진주남강축제 등 20개 문화관광축제 전국에서 열려

① 강을 배경으로 열리는 축제로 가평 ‘자라섬재즈페스티벌’(9.30.~10.3.), 진주 ‘남강유등축제’(1.1.~12.), 논산 ‘강경젓갈축제’ 등이 있다. 소백산을 배경으로 영주 ‘풍기인삼축제’, 드넓은 평야를 배경으로 김제 ‘지평선축제’가 열린다. 천년고도 경주의 ‘술과떡잔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산 ‘자갈치축제’, 인천 ‘소래포구축제’ 등 전국에서 다양한 소재로 축제가 열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고양에 외국인 ② 관광객위한 대규모 관광호텔단지 조성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호텔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 필요 시 호텔용지를 출자해 민간기업과 경기도가 함께 ③ 호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각종 제도개선으로 관광호텔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③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고양관광문화단지 내에 ④ 건립하는 관광호텔의 건축자금의 용자규모를 확대하고 ⑤ 용자상환 기간연장 등 용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③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향후 관광 사업에 투자하는 관광 산업 펀드 조성 시 고양관광문화단지 내에 건립하는 관광호텔에 우선 ③ 투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① 강을 ~ 열린다. → 강을 배경으로는 가평 ‘자라섬재즈페스티벌’(9. 30. ~ 10. 3.), 진주 ‘남강유등축제’(1. 1. ~ 12.), 논산 ‘강경젓갈축제’ 등이 열리며, 소백산을 배경으로는 영주 ‘풍기인삼축제’, 드넓은 평야를 배경으로는 김제 ‘지평선축제’가 열린다.

비슷한 내용의 짧은 문장들이 연이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짧은 문장 두 개를 이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준다. 문장의 구조도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는다.

② 관광객위한 →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과 ‘위한’은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③ ~ 호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호텔 사업을 시행한다.

~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마련해 나간다.

~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 투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부와 경기도가 맺은 업무협약의 내용을 소개하는 문장의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문화부와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통해 약속을 한 것은 ‘호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호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것’은 아니다. ‘계획이나 예정’과 같은 표현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④ 건립하는 관광호텔의 → 건립되는 관광호텔의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주체’와 ‘용자 규모를 확대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피동 표현을 써서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주체’가 문장 속에 나타나지 않게 해준다.

⑤ 용자상환 기간연장 등 용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 용자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용자 조건을 개선하는 등

수식 구조가 복잡하여 문장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관형격 조사 ‘의’를 추가해 주어 ‘용자 조건’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준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한중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동행(美友好情 幸福同行)^①’ 2012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표어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서강수)은 ‘^②한·중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동행(美友好情 幸福同行)’을 2012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표어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한중 수교 20주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한 ^③표어공모전에는 다수의 중국인이 응모하는 등 총 73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④이명훈(28세, 서울 상봉동)씨의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중 양국이 대등한 우호협력관계를 통해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이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⑤이씨는 ‘^⑥한중수교 20주년이라는 성년이 되기까지 양국이 함께해온 시간을 우정으로 표현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동행 하자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싶었다’고 작품 의도를 설명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최우수작 1편 외에도 우수작 2편, 장려작 3편을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 중 중국과 협의를 통해 ^⑦최종 결정된 작품은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표어로서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서강수 원장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개·폐막식, 국립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쌍방향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⑧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①]’ 2012 →]’ 2012

문장부호를 쓸 때, 문장부호의 글자체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2012를 ‘HY견고딕’체로 쓰면]’ 2012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

② 한·중 → 한중

‘한국과 중국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한중’은 한 단어이므로 가운뎃점을 쓸 수 없다.

③ 표어공모전에는 다수의 중국인이 응모하는 등 → 표어공모전에는 다수 중국인의 작품 등

문장의 다른 부분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다른 부분과 잘 호응하도록 다듬는다.

④ 이명훈(28세, 서울 상봉동)씨의 → 이명훈(28세, 서울 상봉동) 씨의

‘씨’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⑤ 이씨 → 이 씨

의존 명사 ‘씨’는 앞의 말과 띄어 쓴다. 단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을 뜻하는 ‘-씨’는 접사이므로 붙여 쓴다. 보도 자료의 ‘이 씨’는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성씨 자체’나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을 가리키는 접사 ‘-씨’가 아닌 의존 명사 ‘씨’가 쓰인 것이라 볼 수 있다.

⑥ 한중수교 20주년이라는 성년이 되기까지 → 한중 수교가 20주년이 되어 성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성년이 되기까지

문장의 수식 구조가 맞지 않으므로 수식 구조가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⑦ 최종 결정된 → 최종적으로 결정된

명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이므로 수식 구조에 맞게 명사를 관형어의 형태로 바꾼다.

⑧ 기대 된다. → 기대된다.

기대 뒤에 나오는 ‘-되다’는 접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문화역서울 284’ 복합문화공간으로 ① 첫발 내딛다.

지난 2년여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문화역서울 284’ (구 서울역사) 개관식이 ② 8월 9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또 8월 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 최고 현대 예술작가들이 참여하는 개관 프로젝트도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심)이 주관하는 ‘문화역서울 284’ ② 개관식이 8월 9일(화) 오후 4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김재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③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 서울역사에서 성대하게 ④ 개최한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⑤ 치사를 통해 “구 서울역사의 역사적 가치 회복과 동시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재탄생은 대한민국 문화의 세계화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생활 제공과 더불어 우리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⑥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⑦ 밝히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개관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⑧ 테이프커팅이 아니라 ⑨ 열분의 내빈이 무대에서 동작감지기를 이용해 직접 영상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이색적인 테이프커팅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한편 2년여 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문화역서울 284’ (구 서울역사)는 8월 11일부터 중앙홀, 대합실, 그릴 등 복원된 공간과 ⑩ 복원공사시 수집한 건축 부자재를 활용한 복원전시실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이를 기념하는 ‘카운트다운(Countdown)’ 개관 ⑪ 프로젝트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① 첫발 내딛다. → 첫발 내딛다

표제어나 표어에서는 문장의 끝에 온점을 찍지 않는다.

② 8월 9일 → 8월 9일(화)

개관식이 8월 9일(화) 오후 4시 → 개관식이

8월 9일 오후 4시라는 정보는 첫 번째 문단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두 번째 문단에서 다시 같은 정보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③ 200여명 → 200여 명

‘명’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④ 개최한다. → 개최된다.

‘개관식’이 스스로 식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다. ‘개관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동 표현을 써야 한다.

⑤ 치사 → 축사

치사는 ‘칭찬을 하는 말’이라는 뜻이므로 의미상 적당하지 않다.

⑥ 지원하겠다”는 → 지원하겠다.”라고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조사 ‘라고’를 써야 한다. ‘라는’은 ‘라고 하는’의 준말이다.

⑦ 밝히고자 한다. → 밝힐 계획이다.

‘~하고자 하다’는 보도 자료의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⑧ 테이프커팅이 아니라 → 테이프커팅이 아닌

‘아니라’는 너무 구어적인 표현이므로 조금 더 문어적인 표현인 ‘아닌’으로 바꾸어 준다.

⑨ 열 분의 → 열 명의

보도 자료에서 존대법을 쓰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⑩ 복원공사시 → 복원 공사 시

‘시’는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⑪ 프로젝트가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 프로젝트를 함께 펼칠 예정이다.

문장 전체의 주어구인 ‘문화역서울 284’와 호응하지 않는다. 문장 성분끼리 호응하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2011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에 명필름 심재명 대표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① 수상자로는 여성영화 제작자로 한국 영화의 성장을 주도해 온 명필름 대표 심재명 씨가 선정되었다.

② 심사위원회는 올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작품 제작으로 척박한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200만 명이라는 관객 동원을 일궈내며 국내 순수 애니메이션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 한국영화의 다양성에 기여했고, 여성 영화인의 저변 확대와 역할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그의 활동이 여성문화 예술인에게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해줄 수 ②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③ 이와 함께 문화계에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④ ‘신진여성문화인상’은 구분아(동양화가), 정유정(소설가), 강화정(공연연출가), 이자람(국악인), ⑤ 정보경(안무가) 총 5명을 선정하여 여성신문사장상을 수여한다. 특별히 임성물산 김을주 대표이사의 후원으로 수여하는 ‘문화예술특별상 을주상’에는 국내 문화예술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클래식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단체인 (사)조이오브스트링스(대표 이진수)를 선정하였다.

- ‘2011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시상식’ 개요
- 일시/장소: ⑥ ‘11. 10. 21(금) 16:00~17:30/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사)여성문화네트워크/(사)여성문화네트워크, 여성신문사
- 시상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및 상금, 여성신문사장 상장

① 수상자로는 → 수상자에

‘선정되다’ 앞에는 조사 ‘에’와 조사 ‘로’가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여성영화 제작자로’라는 표현이 쓰였으므로 ‘수상자로는’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사 ‘로’가 두 번 연속으로 쓰인 문장이 된다. 의미상 수식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다면 같은 조사가 연속으로 쓰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② 심사위원회는 올해 ~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심사위원회는 ‘심재명 씨가 올해 ~ 있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간접 인용이 된 문장이 조금 더 잘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듬어 주고, 간접 인용이 된 부분은 작은따옴표로 표시를 해 준다.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추가해 준다. ‘-었-’을 넣어주지 않으면 ‘수상자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지만 ‘-었-’을 넣어 주면 ‘수상자가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므로 선정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다.

③ 이와 함께 문화계에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 이와 함께 앞으로 문화계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활발한 활동을 꾸며주는 것은 ‘문화계에서’이므로 관형격조사 ‘의’를 추가해 준다.

④ ‘신진여성문화인상’은 ~ 선정하여 → ‘신진여성문화인상’에는 ~ 선정하여

뒤에 나오는 서술어가 ‘선정하여’이기 때문에 조사 ‘은’보다는 조사 ‘에는’이 더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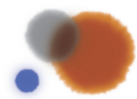
⑤ 정보경(안무가) 총 5명을 → 정보경(안무가) 등 총 5명을

앞에 나열한 단어들을 아울러 주기 위해 의존명사 ‘등’을 넣어 준다.

⑥ ‘11. 10. 21(금) → ‘11. 10. 21.(금)

‘연월일’ 뒤의 온점은 각각 ‘연, 월, 일’을 나타내므로 온점으로 날짜를 나타낼 때는 각각의 숫자 뒤에 모두 온점을 찍어야 한다. ‘연, 월, 일’은 모두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각각 띄어 쓴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이주민, ① 문화향수율 · 만족도 뚜렷이 증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② 110만 명 시대,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이주민의 ③ 문화적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갑영)에 의뢰하여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이주자 1,017명을 대상으로 ④ 한 결과다.

이번 ⑤ 조사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2008년에 비해 이주민의 문화 향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국어 교육, 문화 예술, 생활 문화 등 공공기관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⑥ 2008년 23.8%에서 41.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⑦ 이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주민의 문화 향유가 증가한 데에는 '조사대상 중 4년 이상 거주자가 늘어난 점(19.6%→44.6%)'과 함께 '다문화 관련 정부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공공과 민간영역에서의 이주민 문화프로그램 제공의 증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⑧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 지원과 내국인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다문화정책 예산을 2010년 52억, 2011년 57억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① 문화향수율 · 만족도 → 문화 향수율 · 만족도

'문화'라는 단어는 '향수율'과 '만족도' 두 단어에 모두 걸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화 향수율 · 만족도'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100만 명 시대, →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해 주기 위해 표현을 다듬는다.

③ 문화적 욕구와 실태를 → 문화적 욕구와 그 실태를

'문화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관형사 '그'를 추가한다.

④ 한 결과다. → 이루어졌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⑤ 조사에서 가장 →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조사에서'에 어울리는 적당한 말을 넣는다.

⑥ 2008년 23.8%에서 41.0% → 2008년 23.8%에서 2010년 41.0%

'2008'년에 대응하는 '2010년'이라는 말을 추가한다.

⑦ 이주민이 ~ 나타났다. → 이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이 전체적으로 비문이므로 호응 관계가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⑧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 지원과 내국인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 이주민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고 내국인과 소통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해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 지원'은 명사가 나열된 형태이고, '내국인과의 소통을 증진하다'는 문장의 형태이므로 대등하게 연결될 수 없다. 두 가지 내용이 대등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해외 진출 영화 대출 길 열려

작년 12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의석, 이하 영진위)와
①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유창무, 이하 K-sure)는 ② “한국영화 제
작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출지급보증계정 운영에 대한 ②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각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출자하였다.

출자금은 제작비 대출 신청을 한 영화 기업에 대한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결
정되었을 때, 영화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게 될 자금의 지급보증
재원으로 활용되며, ③ 대출금은 영화제작비의 최대 50% 이내로 ④ 리스크
등 평가를 통해 대출규모가 결정되며, ⑤ 중소기업 투자제작사의 제작자본
조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영화는 해외 진출이 되었거나 해외 진출 가능성이 ⑥ 높은 작품이
며 감독이나 제작사가 최근 5년 내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지원 신
청이 가능하다.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로 향후 약 5년간 공
동 출자금 ⑦ 80억원의 최대 10배수(800억원)까지 지급 보증을 실시할 계
획이다. 이는 현재 투자 분야에 집중된 영화제작비 조달 경로를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한국영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로
영화 산업 ⑧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대출지급보증 계정 출자라는 새로운 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제작 자본이 영화 현장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적으로 공급되고, 이를 통해 한국영화 제작 여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①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같은 기관을 가리키기 때문에 둘 중에 하
나만 적으면 된다.

② “한국영화 ~ 업무협약” → “한국 영화 ~ 업무협약”

문장 속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면 큰따옴표가 아닌 작은따옴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대출금은 ~ 결정되며 → 대출금은 영화 제작비의 최대 50% 이내에서 투자
위험도 등의 평가를 통해 적절한 규모로 결정된다.

문장이 전체적으로 비문이므로 주술 관계가 맞게 다듬어 준다.
문장이 너무 기므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눈다.

④ 리스크 → 투자 위험도/위험도/위험

‘리스크’는 ‘위험, 위험 요인, 위험 요소’ 등으로 순화되었다. 순화어를 그
대로 썼을 때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미에 맞는 적절한 단
어로 순화를 해서 쓰면 된다.

⑤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라는 단어는 명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명사 앞에서’ 쓰이고, 뒤의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의 말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⑥ 높은 작품이며 감독이나 → 높은 작품이며, 감독이나

수식 구조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장이므로 ‘높은 작품이며’ 뒤에 ‘반점’을
추가하여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사이에 경계를 표시해 준다.

⑦ 80억원 → 80억 원

‘원’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⑧ 수익률 제고에도 → 수익률을 높이는 데에도

‘제고’는 ‘높이는 데’로 순화할 수 있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2011 문화의 날 기념식 복원된 강릉 관아에서 ① 10.15.열려

10월 15일 문화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마당이 ②오는 10월 14일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복원된 강릉 관아 내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강릉시 곳곳에서 '공간의 문화, 신명의 땅에서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 성대하게 펼쳐진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시작된 문화의 달 행사는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③2003년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전주, 제주, 부산, 청주, 인천, 목포에 이어 2011년은 강릉에서 아홉 번째로 개최된다.

'문화의 날'인 15일 토요일에는 ④'문화난장 - 칠사당 거리의 재발견'이 오후 3시부터 구명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한국은행 사거리까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는 구간으로 조성된다. 거리 일대에서는 다양한 공연, 전시를 비롯하여 문화 체험과 볼거리가 펼쳐져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문화난장이 펼쳐진다.

⑤ 문화훈장 서훈은 총 20명으로,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 이근배 등 은관문화훈장 5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홍숙호(석창) 등 보관문화훈장 3명, 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 성판례(우향) 등 옥관문화훈장 7명, 도서관문화연구회 회장 조원호 등 화관문화훈장 5명이 각각 수여받는다.

강릉은 이번 문화의 날 행사를 계기로 강릉 지역의 문화 ⑥컨텐츠 개발, 복원된 강릉 관아의 문화공간으로의 인식,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① 10.15.열려 → 10. 15. 열려

'연월일' 뒤의 온점은 각각 '연, 월, 일'을 나타내므로 온점으로 날짜를 나타낼 때는 각각의 숫자 뒤에 모두 온점을 찍어 줘야 한다. '연, 월, 일'은 모두 개별적인 단어이므로 각각 띄어 쓴다.

② 오는 10월 14일을 시작으로 16일까지 →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문장을 조금 더 간결하게 다듬는다.

③ 2003년부터 ~ 개최된다. → 2003년 대구 개최를 시작으로 광주, 전주, 제주, 부산, 청주, 인천, 목포에서 개최되었으며 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2011년 행사는 강릉에서 개최된다.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④ '문화난장 ~ 조성된다.' → '문화난장 - 칠사당 거리의 재발견' 행사를 통해 오후 3시부터 구명초등학교에서 한국은행 사거리까지의 거리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간으로 조성된다.

문장이 전체적으로 비문이므로 수식 구조가 맞게 문장을 다듬는다.

⑤ 문화훈장 ~ 수여받는다. → 문화훈장 서훈의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 이근배 등 5명이 은관문화훈장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홍숙호(석창) 등 3명이 보관문화훈장을, 한국판소리보존회 이사장 성판례(우향) 등 7명이 옥관문화훈장을, 도서관문화연구회 회장 조원호 등 5명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다.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수여받는다'는 '명사 +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의 구조이다. 틀린 표현은 아니나 그냥 '동사 받는다'를 써서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이 더 좋다.

⑥ 컨텐츠 → 콘텐츠

'contents'는 '콘텐츠'로 표기한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 5월 27일 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광주에 ① 건립중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 인근에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이하 준비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 ② 행사는 그동안 한·중앙아시아 신화·설화 협력 사업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키르기스스탄의 ③ 샤키예브 누를란벡 문화정보부 장관이 특별히 참석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건립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5개원으로 구성된다. ④ 그 중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 자원을 ⑤ 조사 수집하여 아시아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고 문화콘텐츠 창작의 원천 소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편안하게 ⑥ 문화자원의 정보열람·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전당과 문화도시에서 활동할 창의적 인재 양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에 개관하는 ‘준비관’은 2개 층 871㎡(약 264평)의 규모로 문화 자원 보존·관리 공간, 문화 자원 체험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분되며, 5월 27일 개관 행사와 함께 문화 자원 체험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이 ⑦ 공개 된다. 이러한 기능은 2014년 개관하게 될 아시아문화전당 내 총고 10~15m, 연면적 ⑧ 3천평 규모의 아시아문화정보원(라이브러리파크)에서 연구자, 기획자, ⑨ 아키비스트 등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개념의 전시·체험·검색·열람 방법을 구체화, 고도화하게 된다.

① 건립중인 → 건립 중인

‘중’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② 행사는 → 행사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서술어 ‘참석한다’에 어울리도록 주어를 바꾸어 준다.

③ 샤키예브 누를란벡 → 샤키예프 누를란베크

외래어의 정확한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 중 → 그중

‘그중’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⑤ 조사 수집하여 → 조사, 수집하여

‘조사하다’와 ‘수집하다’가 연이어 나오는 형태에서 ‘조사하다’의 ‘-하다’가 줄어든 것이므로 쉼표를 써야 한다.

⑥ 문화자원의 정보열람·체험할 수 있는 → 문화 자원의 정보를 열람하고 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자원의 정보 열람’은 명사가 나열된 형태이므로 ‘체험하다’와 가운뎃점으로 묶일 수 없다. 문장을 적절하게 풀어 쓰고, ‘체험하다’에 적절한 목적어를 넣어 준다.

⑦ 공개 된다. → 공개된다.

‘명사’ 뒤에 나오는 ‘-되다’는 접미사이므로 앞의 말과 붙여 쓴다.

⑧ 3천평 → 3천 평

‘평’은 의존명사이므로 앞의 말과 띄어 쓴다.

⑨ 아키비스트 → 기록 관리사

‘아키비스트’는 ‘기록 관리사’로 순화하였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1 구서울역사의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심)은 2 (구)서울역사를 원형 복원하여 8월에 개관하게 될 복합문화예술공간의 명칭을 2011년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한다. 명칭 공모전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이며, 교통과 교류의 관문이었던 (구)서울역사가 다양한 문화예술이 창작되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공간으로의 3 재탄생을 알리며,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새로운 4 명칭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의 목적과 취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참신한 명칭'이다.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의 명칭은 (구)서울역사가 가지고 있는 5 역사성, 장소성이 잘 드러나며, 공공성격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생산 향유되는 복합문화공간이며, 또한 지역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지향적 문화시발점으로서의 (구)서울역사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야 한다.

공모전 접수는 구서울역사 명칭 공모전 홈페이지(www.seoulstation.org)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및 (구)서울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2011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및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며, 최우수작(100만 원)을 비롯하여 입선(10만 원) 5명 등 총 6명에게 6 150만원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최우수작은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의 명칭 및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1 구서울역사 → 구 서울역사

'구(舊)'는 관형사이므로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뒤의 말과 띄어 쓴다.

2 (구)서울역사를 원형 복원하여 8월에 개관하게 될 복합문화예술공간의 → 8월에 개관하게 될, 구 서울역사의 원형을 복원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의

'원형'은 명사이므로 '복원하다'를 꾸밀 수가 없다. '원형'에 목적격 조사 '을'을 붙이면 '구 서울역사를 원형을 복원하여'와 같이 목적어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오는 문장이 되므로 목적어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오는 문장을 피하기 위해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어 준다.

3 재탄생을 알리며 → 재탄생하는 것을 알리고

주어 '구 서울역사가'와 호응하는 형태로 바꾸어 준다.

4 명칭을 개발하기 위해 → 이름을 정하기 위해

이름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준다. '명칭'은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부르는 이름'을 뜻하기 때문에 그 의미 폭이 좁으므로 의미가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인 '이름'을 써 준다.

5 역사성, 장소성이 잘 드러나며, 공공성격의 → 역사와 장소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공공성이 있는

'장소성이 드러난다'와 '공공 성격'처럼 의미 전달이 잘되지 않는 표현들을 의미 전달이 잘될 수 있는 표현들로 바꾸어 준다.

6 150만원의 상장과 상금이 → 상장과 150만 원의 상금이

수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수식 구조에 맞게 다듬어 준다. 상장이 150만 원인 것은 아니다.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보도 자료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2년 00월 00일 배포 2012년 00월 00일 00시 이후 보도
총 1쪽 담당: 000
전화: 02) 3704-0000 / 전송: 3704-0000 / 전자우편: 0000@korea.kr

2010 · 2011년 우수 여행 상품 인증식 개최

우수여행상품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 상품의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① 국내·외 ② 관광객의 여행상품 선택에 신뢰를 제고하고, 여행상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올해는 총 296개 상품이 인증 신청을 하였으며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적으로 60개 상품을 확정하였다.

평가 공정성과 ③ 객관성을 위해 시행 기관과 심사·평가 기관의 분리

이번에 인증된 우수 여행 상품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대상으
로 공모를 실시하여 ④ 응모한 296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울
러 시행 기관인 한국일반여행업회가 ⑤ 입찰을 통해 심사·평가기관을 한국
관광학회를 선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된 우수 여행 상품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해 인증 상품 이용객
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조사 등을 통하여 인증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지속하여 그 상품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 상품으로 ⑥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인증된 ⑦ 우수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여행상품 품
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향후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여행 상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① 국내·외 → 국내외

‘국내외’는 한 단어이므로 가운뎃점을 쓸 수 없다.

② 관광객의 ~ 높이기 위해 → 관광객들의 여행 상품 선택 시,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여행 상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도 높여주기 위해

문장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으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준다.

③ 객관성을 위해 → 객관성을 위한

뒤에 명사구가 오기 때문에 부사어의 형태인 ‘위해’가 아닌 관형어의 형태인 ‘위한’을 써 주어야 한다.

④ 응모한 → 응모된

이 문장의 주체는 ‘심사를 하는 기관’이므로 ‘응모한’이 아닌 ‘응모된’을 써야 한다. ‘응모된’이 꾸며주는 것은 ‘상품’이다.

⑤ 입찰을 통해 심사·평가기관을 한국관광학회를 → 입찰을 통해 한국관광학회를 심사·평가 기관으로

‘목적격 조사’가 두 번 겹쳐 나와서 깔끔하지 못한 문장이므로 문장이 깔끔해질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다.

⑥ 자리 매김할 → 자리매김할

‘자리매김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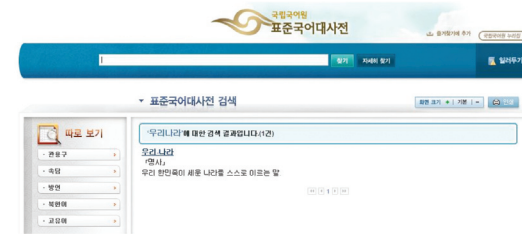
⑦ 우수여행상품에 대해서는 → 우수 여행 상품에는

‘~에 대하다’는 번역식 표현이므로 쓰지 않아도 의미가 잘 통한다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보도 자료 쓸 때 도움받을 곳

■ 표준국어대사전

- 나루 초기 화면 또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사전을 찾아볼 수 있다.



■ 가나다 전화: 1599-9979

- 상담 시간: 월~금, 9:00~18:00
-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온라인 가나다'에 문의할 수도 있다.

■ 공공언어 지원 요청

-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국립국어원 누리집 → 공공언어 지원 (<http://www.korean.go.kr/publang>)

■ 매주 나루에 '보도 자료 표현, 표기 수정 사례'를 올리는 국어 검토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전화, 쪽지로 문의할 수 있다.

■ 순화어 찾기

- 다듬어 놓은 말(순화어)을 찾아볼 수 있다.
- 국립국어원 누리집 → 찾기 마당 → 순화어
(http://www.korean.go.kr/09_new/dic/word/word_refine.jsp)



기획·편집 국어정책과
원고 신능호
담당 최선식, 김형배

■ 국어문화학교

-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여 국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02) 2669-9752, 9729

■ 국어 온라인 강의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한글 맞춤법, 국어 순화, 공문서 바로 쓰기' 강의를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한눈에 알아보는 **보도 자료 바로 쓰기**

발행일	2012년 3월 12일
발행인	최광식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누리집	http://www.mcst.go.kr
주소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화	02-3704-9436, 9424